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2017. 5. 31.

연구용역책임자 : 김관보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용역 의뢰한 「2016년도 기타공공
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5. 31.

연구용역책임자 김관보 교수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장)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연구책임자(평가단장) : 김관보 (가톨릭대)

공동연구원(평가위원) : 이민창 (조선대)

공동연구원(평가위원) : 정종원 (가톨릭대)

공동연구원(평가위원) : 손해진 (삼덕회계법인회계사)

공동연구원(평가위원) : 김철영 (CS법무법인 변호사)

< 목 차 >

제I부 연구 용역 개요	1
제II부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0
제III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기타공공기 관 세부 평가 결과	2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
4. 한식재단	96
제IV부 향후 평가 및 평가지침 개선사항 ..	11

제 1 부

연구 용역 개요

1. 연구 용역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하고 있음.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2015년부터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공운위(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바 본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실시 하고자 함.

2. 평가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 함.

3. 연구용역 수행기간

- 2017. 3. 20.~ 5.31.(약 2개월)

4. 연구용역 과업 주요 내용

□ 2016년도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 평가대상(4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품검역인증원, 한식재단
-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 12. 31(1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점검 및 이의신청 병행
- 평가범주 :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별 계량 및 비계량지표
 - 경영관리 :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

리후생 관리(임금피크제, 노사관리, 총인건비 인상률 포함)

-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의 종합적 평가(비계량 지표) 및 주요사업별 개별 평가(계량지표)

○ 지표별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 : C 등급(보통)을 중심으로 9등급(A~E 기본등급에 우수등급은 +부여)
 - * 각 지표별 세부평가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 부여
- 계량지표 : 목표부여(편차) 방법 적용을 원칙
 - *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목표부여, 목표 대 실적 불가피한 경우 목표부여, 목표 대 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5. 평가 지표 및 내용: 4개 기관 공통

□ 평가지표 및 가중치

범 주	평가지표	가중치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국민평가(고객만족도조사)		5
	2. 업무효율		5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성과		2
	- 계량관리업무비		8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8 (2)	
* 가점 :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도입 완료기관(2점)			
- 총인건비 인상률		5	
- 노사관리	7		
	소계	15	25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25	35
	소계	25	35
합 계		40	60

※ 가점 :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기재부, '16.1월)에 따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완료 ('16.12.31까지)한 기관에 대하여 '16년도 경영실적평가지 가점(2점)

- 평가결과 종합 : 6등급(S 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해 산출
 - 종합평가 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등급	종합점수	수 준 정 의
탁월 (S)	100~90점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90점미만~80점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80점미만~70점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70점미만~60점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60점미만~50점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50점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 지표 세부 내용: 4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 사업 세부 지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6.11).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에 의거함.

<경영관리 범주>

- 1) **고객만족도(계량)**: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함.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나. 평가내용

다. 항목별 원인분석

라. 추세분석

2) **업무효율(계량)**: 종합적인 업무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사업수행효율성 등)

가. 평가개요

나. 평가내용

다. 항목별 원인분석

라. 추세분석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계량):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예산) 관련 안정성, 투자 및 집행효율성 등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평가

가. 평가개요

나. 평가내용

다. 항목별 원인분석

라. 추세분석

(2) 계량관리업무비(계량): 관리업무비 운용 실적을 평가

가. 평가개요

나. 평가내용

다. 항목별 원인분석

라. 추세분석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8점): 보수 제도와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및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

①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가점부여 :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기재부, '16.1월)에 따라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완료('16.12.31까지)한 기관에 대하여 가점부여(2점)

②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③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2) 총인건비 인상률(계량 5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평가

- 가. 평가개요
- 나. 평가내용
-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라. 추세분석

(3) 노사관계(비계량 7점):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 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 ②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 ③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④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⑤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주요사업 범주>

1) **주요 사업 (비계량)**: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 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그리고 주요사업 범주 전체 지표구성의 적정성 평가

-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인가?

2) **주요 사업(계량)**: 4개 기관 주요 사업별 경영성과가 목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 ① 성과지표는 각 사업별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량 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계량지표는 원칙적으로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성과지표(outcome)로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산출지표(output)도 가능
- ③ 각 사업별로 1~2개 수준의 세부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경영평가단 구성

- 평가주관: 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
- 평가단 구성 및 역할
 - 평가단 인원: 총 5명의 평가위원 (前)공공기관 경영위원, 교수, 회계사,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역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	책임자 (단장)	김관보	가톨릭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06) -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2009, 2009-2010)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51개 기관) 총괄 위원장(산자부/동반위)(2015) - 국방부 재정사업자율평가 민간위원장 (2011-2015)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5, 2016) - (현) 공정위 상습법외반사업자명단공표 심의 위원(2013-현재) - (현) 국방부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민간 위원(2016-현재) - (현)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15-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및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비계량 지표 전담 평가 및 집필 - 기타 3개 기관 공동 평가
2	평가위원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2011-2013)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 금평가위원(2011-2013)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위원(2012-2014) - 산업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5-2016)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5, 2016)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실적 평가위원(2015-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전담 및 집필+ 한식재단 일부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 기타 2개 기관 공동 평가
3	평가위원	정종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가생산성본부(National Center for Public Performance) 선임연구원 (2006. 09 -2009. 08)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2015, 2016) -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진단위원 (농진청 등 2012, 2014, 2016) - (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경영자문위원(2015.09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 한식재단 일부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 기타 2개 기관 공동 평가

4	평가위원	손해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0월 ~ 현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외부 평가위원 - 2014년 4월 ~ 2016년 8월 : 농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계량평가위원) - 2014년 4월 ~ 현재 :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계량평가위원) - 2014년 4월 ~ 2016년 8월 : 법무부 산하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계량평가위원) - 2013년 2월 ~ 2013년 8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공기업 II군 계량평가위원) - 2010년 3월 ~ 2013년 8월 : 외교통상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계량평가위원) - 2009년 2월 ~ 2011년 8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 (고유과제 계량 간사) - 2008년 2월 ~ 2008년 8월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공기업 II군 계량평가위원) - 2006년 2월 ~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비전/경영전략, 경영혁신, BPR/ISP, ERP 구축 프로젝트 PM - 2006년 2월 ~ 현재: 국민연금기금,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회계감사 감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기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5	평가위원	김철영	CS 법무법인	변호사 (노동법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2009년~2011년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 2000년-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10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사관리 평가위원 - 2011년~2013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사관리 평가팀장 - 2014년~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 2016년교육부,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기관 경영관리 노사관리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7. 평가 추진 일정

- 평가주관: 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
- 농림부 운영지원과 용역의뢰 및 계약체결 : 2017년 3월 20일
- 경영평가 착수보고회 및 평가단 운영 일정협의 : 2017.3.17.- 3.20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평가위원 배부 : 3. 20일(착수보고일 이전)까지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시 : 4월 ~ 5월
 - 서면평가, 현장실사, 이의신청 접수,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최종보고회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5월 말
- 검사 및 검수 : 6월 초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제출 : 6. 20일까지

<< 평가단 세부 평가 진행 일정: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가. 착수보고회 (2017년 3월 17일)

- 농림부의 평가취지 설명, 피평가기관 사전설명, 평가 메뉴얼 검토
- 평가단 4단계 평가 계획 설명

나. 1단계: 서면평가(-4/20)

- 평가위원 담당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초안 평가위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달
(평가결과 공유 후 일관성 유지 차원).
 - 제출 마감일정은 잠정적으로 4개 기관 평가보고서 접수 후 3-4주 이내로 4월 20일까지(조기 평가 완료시 4월 20일 이전에 공유).

다. 2단계: 현장 점검 (-4/30)

- 서면평가를 토대로 4월 30일 이전에 실시완료.
- 현장실사 방법: 4개 기관 방문 30분 발표 및 질의 응답 20분 정도로 각 기관 1시간 소요.

라. 3단계: 평가결과 분석 총괄 회의(-5/10)

- 평가단 + 농림부 담당자 논의로 조정 및 최종 확정(최종보고회 가능)

마. 4단계: 최종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5월 16일~31일)

제 Ⅱ 부

평가결과 요약 및 총평

1. 총 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해 온 반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부처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 한식재단이 추가된 이후 2017년 현재 3년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 “농림축산식품부 (2016.11).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에 준거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경영관리 40점, 주요사업 60점 총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각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각각 가중치 60:40으로 평가하였으며, 계량지표는 산식에 실적치를 적용하고 가중치에 따라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비계량지표는 ‘A+’에서 ‘E0’까지 총 9단계로 평가하였다. 기관간의 경영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종합 평점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는 국민평가(고객만족도조사), 업무효율,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의 4개 하위 평가요소로 구분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하위요소는 보수 및 복리후생(임금피크제 포함) 및 노사관리에 대한 비계량평가,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2017년의 2016년도 실적 평가에는 기획재정부 권고안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완료(2016년 12월 31일 한)기관에게 성과연봉제 가점 2점을 부여하였다.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 환류, 지표 적정성 등의 종합평가 및 기관 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종합평가는 비계량평가를,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량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평가에 있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29.777점, 주요사업 범주에서 53.453점을 획득하여 성과연봉제 가산점을 포함하여 평가 총계 85.23으로 평가등급 A등급이 부여되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32.593점, 주요사업 범주에서 55.51점을 획득하여 평가 총계 88.103로 평가등급 A등급이 부여되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30.845점, 주

요사업 범주에서 54.883점을 획득하여 성과연봉제 가산점을 포함하여 평가 총계 87.728로 평가등급 A등급이 부여되었다. 끝으로 한식재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25.518점, 주요사업 범주에서 45점을 획득하여 성과연봉제 가산점을 포함하여 평가 총계 72.518로 평가등급 B등급이 부여되었다.

- 계량지표 평가와 비계량지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에서 53.43점, 비계량에서 29.8점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에서 55.103점, 비계량에서 33점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에서 56.728점, 비계량에서 29점을 각각 획득하였다. 끝으로 한식재단은 계량에서 54.518점, 비계량에서 16점을 각각 획득하였다.
- 계량과 비계량의 가중치 비율은 2015년 평가에서 계량 73, 비계량 27에서 2016년 계량 60, 비계량 40으로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며, 2017년은 2016년과 동일하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계량지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질적인 계량지표의 선정, 지표산식의 확정, 난이도의 설정 등이 매우 중요한 바 4개 기관 공통적으로 계량지표의 선정을 위해 2016년 평가(2015년도 실적)에 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과 연동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특히 2016년 평가에서 지적한 것처럼 4개 기관 공통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망되며, 이에 연동된 결과지표(outcome) 위주의 성과지표 및 주요 사업 과제 및 세부이행 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개인 및 조직 별 성과평가 계획,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임금피크제 포함) 계획이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경영관리 범주

1) 총 합

- 경영관리 범주에 있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에서 19.977점, 비계량에서 9.8점으로 합계 29.777점을 획득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에서 22.093점, 비계량지표에서 10.5점으로 합계 32.593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에서 21.845점, 비계량에서 9점으로 합계 30.845점을 획득하였다.

끝으로 한식재단은 계량에서 19.518점, 비계량에서 6점으로 합계 25.518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적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 부분에서는 정부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임금피크제 포함) 정책 방향에 대한 성과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양호인 반면,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재단은 상대적으로 보통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 부채 및 방만경영 지양,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좀 더 도전적인 경영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노사관리의 측면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개 기관이 양호 수준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보통, 한식재단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지표별

- 고객만족도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농축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은 모두 기획재정부 주관의 PCSI 2.0에 의하여 2015년부터 새로운 고객만족도 평가방식을 적용 받아오고 있으며,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은 각각 지수점수 82.12점, 85.4점, 90.5점, 81점으로 고객만족도 경영평가 계량지표 가중치 5점 만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106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27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525점, 한식재단 4.050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업무효율 평가 계량지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재단은 사업수행효율성(순사업비/평균인원)이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으로써, 2016년도 지표실적 각각 7,092천원과 69,389천원, 406,893천원이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2016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 실적은 86.666%로 업무효율 계량지표 가중치 5점 만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은 각각 1.000점, 5점 만점, 3.751점, 4.236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재무예산성과 평가 계량지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재단은 사업비집행률(사업비집행액/사업비예산현액),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부채비율(부채/자본)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재단의 사업비집행

를 2016년 지표실적은 각각 91.925%, 82.450%, 92.506%이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2016년 부채비율은 1.225%로써 2016년 재무예산성과 계량지표 가중치 2점 만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그리고 한식재단은 각각 1.871점, 1.719점, 2.000점 만점 그리고 1.880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계량관리업무비 2016년 지표실적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 각각 19.953%, 17.099%, 17.820%, 4.534%로써 계량관리업무비 계량지표 가중치 8점 만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그리고 한식재단은 각각 8점 만점, 6.104점, 6.569점 그리고 4.352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여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3%이내 대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의 2016년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률은 각각 2.994%, 2.287%, 2.707%, 2.927%로써 기존 산하기관 모두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4개 기관 모두 총인건비인상률 계량지표 가중치 5점 만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임금피크제 포함)에 있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B0 등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B0 등급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C 등급으로, 끝으로 한식재단은 D0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2016년에 비해 현상 유지 1개, 개선 3개의 실적으로 평가되었다.
- 노사관리에 있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C 등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B0 등급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C 등급을, 끝으로 한식재단은 D0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에 3개의 기관이 개선되었으며, 1개의 기관이 현상유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의 현실에서 출발한 실질적 조치와 연계되는 방법보다 정부 정책의 수용 및 실현 관련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 노사 모두 보다 전향적인 협약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주요사업 범주

1) 종합

- 주요사업 부문에 있어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에서 33.453점, 비계량에서 20점으로 합계 53.453점을 획득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에서 33.01점, 비계량지표에서 22.5점으로 합계 55.51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에서 34.883점, 비계량에서 20점으로 합계 54.883점을 획득하였다. 끝으로 한식재단은 계량에서 35점, 비계량에서 10점으로 합계 45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적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 및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 부분에서는 우수 수준 1개, 양호 수준 2개, 미흡 수준 1개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러한 주요사업의 비계량지표의 실적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차원에서 경영관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2) 지표별

-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A0 등급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각각 B+ 등급을, 한식재단은 D0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에 비해 4개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종합적인 등급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주요 사업 및 세부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의 상당한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우수 등급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와 주요 사업 및 세부 업무 추진 계획, 기관의 비전, 전략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성과지표의 선정 및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등이 보다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향후 기관들은 각종 제도와 기술의 선진화, 청년 고용 촉진 등 인력의 적정 활용 등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의 비계량적 사업 성과 노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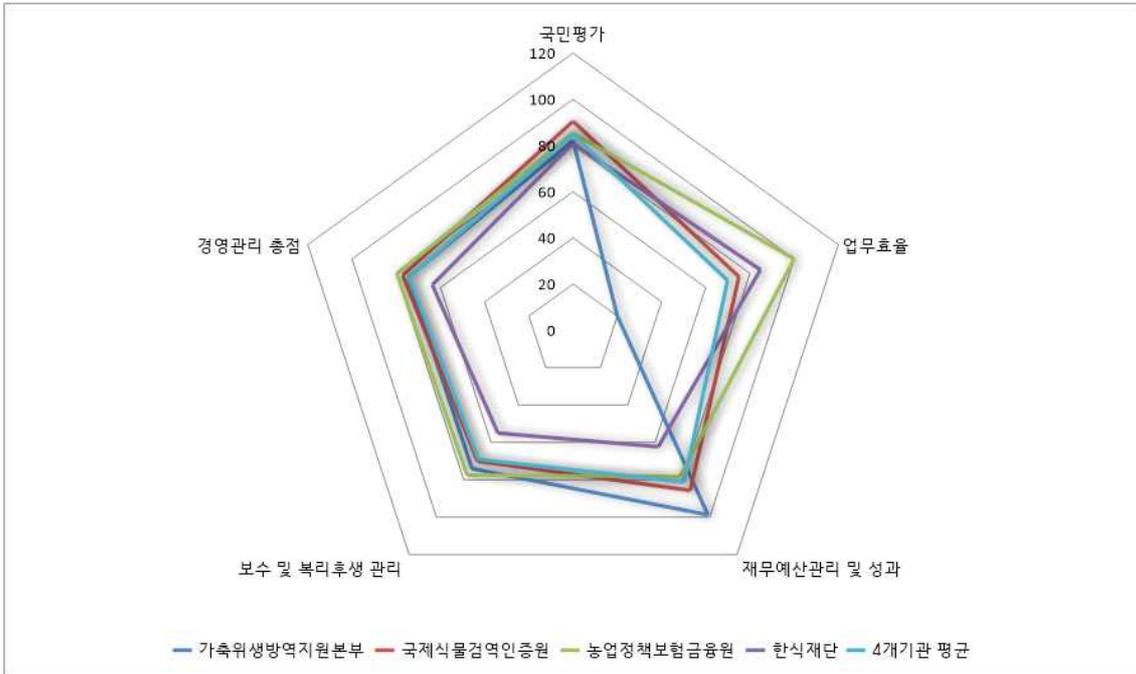
4. 기관별 평가 결과 득점 분포

- 4개 기관별 평가 점수를 토대로 기관별 득점분포를 살펴 본 바, 우선 방사형 그래프로 경영관리 범주에서 각 평가지표별 기관별 득점률, 4개 기관 총 득점률, 4

개 기관 평균 득점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 종합평가'부문 이외에는 공통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막대그래프로 기관별 득점 정도를 표시하였고,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평가 총점을 기관별로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또한 항목별로 가중치가 다른 바 획득할 수 있는 총점 대비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100% 점수 중 몇 %를 획득했는지 득점률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어떤 항목에서 높은 점수 또는 낮은 점수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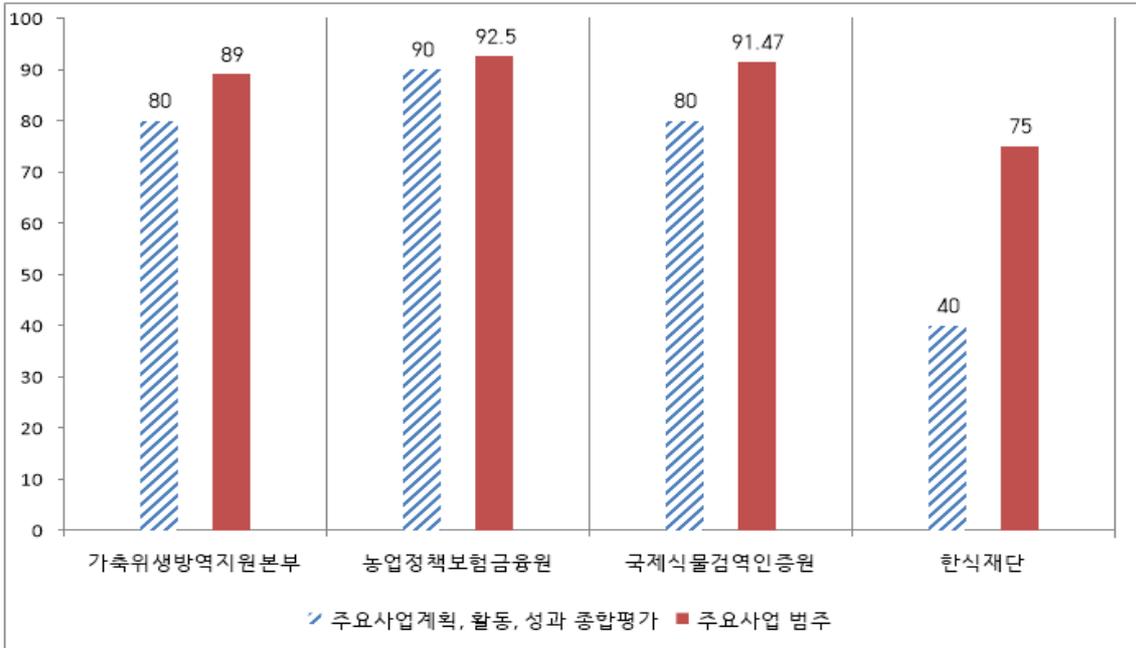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기관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국민평가(5점 만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가장 높은 득점을 하였고(90.5%), 농업정책보험금융원(85.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2.1%), 한식재단(81%)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효율(5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가장 높은 득점을 하였고(100%), 한식재단(84.72%), 국제식물검역인증원(75.0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부문(10점 만점)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장 높은 득점을 보였고(98.71%), 국제식물검역인증원(85.69%), 농업정책보험금융원(78.23%), 한식재단(62.32%)순으로 득점률이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부문(20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77.5%)이 가장 높은 득점을 보였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4%),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 한식재단(55%)순으로 득점률이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 총점(40점 만점)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79.6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4.44%), 국제식물검역인증원(77.11%), 한식재단(63.7%) 순으로 나타났다.
- 4개 기관 평균 득점률을 살펴보면, 국민평가(84.75%) >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81.23%) > 업무효율(69.93%)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69.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경영관리 범주 평가 4개 기관별 득점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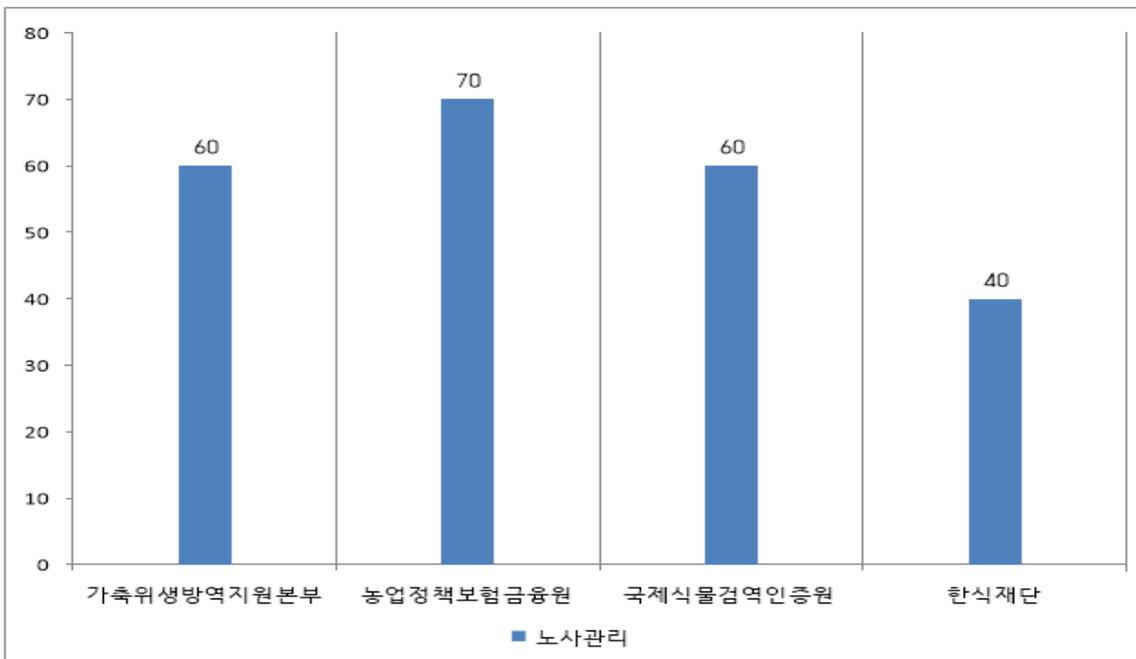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계획, 활동, 성과 종합평가(25점 만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90%)이 가장 높은 득점률을 보였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80% 득점률, 한식재단이 가장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40%) (<그림 2> 참조).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60점 만점)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2.5%) > 국제식물검역인증원(91.47%)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9%) > 한식재단 (75%)순으로 득점이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주요사업 범주 기관별 득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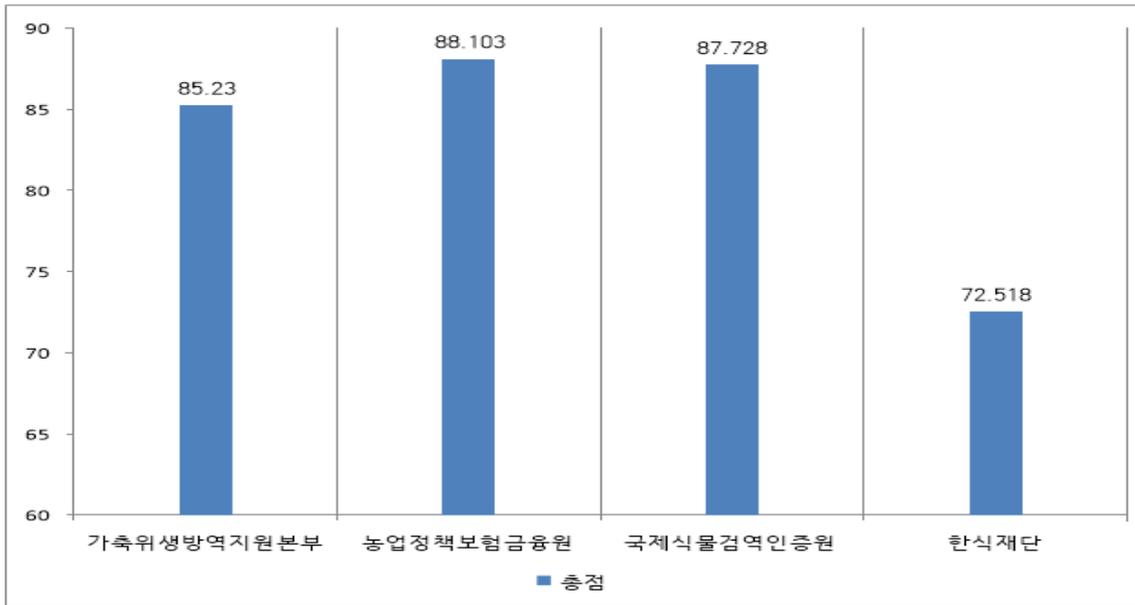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중 노사관리에 대한 기관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가장 높았고(7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동점으로(60%) 나타났으며, 한식재단이 가장 낮은 득점률(40%)을 보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경영관리 범주 중 노사관리 기관별 득점률



- 기관별 평가 총점을 살펴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88.103점으로 가장 높은 득점을 하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87.728점(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 포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5.23점(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 포함), 한식재단 72.518점(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 포함)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그림 4> 기관별 평가 총점(경영관리+주요사업)



5. 향후 개선 사항: 평가대상 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 편람 부문

- 향후 개선사항은 본 평가보고서 제4부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 제IV부의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선사항들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 편람 수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경영 평가 개선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한식재단을 제외한 3개 기관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세 번째 경영평가인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개선된 주요 사업 수행 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5년도 실적에 비해 평가지표 설정시 계량지표 선정과 산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보수 및 복리후생(임금피크제 포함)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성과지표의 대표성·측정산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관리 범주 및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성과지표 선정시 대표성, 측정산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기관 자체의 교육실시 독려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라 계량평가 방법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계량지표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있다. 반면에, 타 부처(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등)의 경우 각 부처는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라 산하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만들면서, 각 부처의 현황에 맞게끔 이상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 방식에서 목표부여의 최고목표를 “기준치 + 또는 - 1×표준편차(또는 10%)”로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작성시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III 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기타공공기관
세부 평가 결과

I.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총괄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평점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국민평가(국민채감도 평가제외)	5		4.106	4.106
	2. 업무효율- 사업수행 효율성	5		1.000	1.000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1.871	1.871
	(2) 계량관리업무비	8		8.000	8.000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8	B ⁰ *가점		5.600
	(2) 총인건비 인상률	5		5.000	5.000
	(3) 노사관리	7	C		4.200
	경영관리 합계	40		19.977	29.777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25	B ⁺		20.000
	2. 가축방역사업				
	(1) 치료채취(5대 질병) 달성율	8		7.698	7.698
	(2) 치료채취(AI) 달성율	4		4.000	4.000
	(3) 농가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율	5		3.755	3.755
	3. 축산물위생사업				
	-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	10		10.000	10.000
	4.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사업				
-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	8		8.000	8.000	
	주요사업 합계	60		33.453	53.453
	전체 합계	100		53.430	A

I. 경영관리

1. 고객만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PCSI 2.0 고객만족도지수	절대지수 평가	100.000	82.128	82.128	5.000	4.106

나. 평가내용

-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적용에 따라 '16평가년도 PCSI 2.0 조사결과와 전년도 점수의 향상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년도 조사결과 절대지수만 사용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2.128점으로 고객만족도 절대지수 평점에 따라 82.12점을 획득하여 5점 만점 중 4.1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한 고객만족경영체제 강화
 - 기관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경영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고객만족경영 활동 적극 전개하고, 고객만족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일원화된 VOC 처리·분석 및 공유·활용 체제 강화하였다.
- CS 경영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고객분석을 통한 선택적 집중관리
 - 기관은 CS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CS 활동 추진 및 전화예찰센터 운영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점점 직원의 CS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고객 분석을 통한 선택적 집중관리, CS 홍보물 제작 및 배포하였다. 또한, 전화예찰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도 PCSI 2.0 모델 최초 적용으로 2015년도 82.600점, 2016년 82.128점을 달성하였다.

2. 업무효율: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 평균인원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15,610,737 최저 9,103,460	7,092,357	20.000	5	1.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평균인원 대비 순사업비 집행액을 평가하여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증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수행효율성은 평균인원 1인당 7,092천원으로, 직전년도(2015년) 13,441천원 대비 평균인원 1인당 순사업비 집행 효율성이 6,349천원(-47.24%) 크게 감소하여 최저목표치 9,103천원에도 미달하여 목표부여 기본평점 20점으로 지표 가중치 5점 중 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순사업비 집행액이 직전년도(2015년) 대비 3,035백만원(37.12%) 크게 감소하여 평균인원은 전년대비 116.6명(19.17%)으로 다소 증가하여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인당 순사업비 집행액)은 전년대비 6,349천원(-47.24%) 크게 감소하여 최저목표치 9,103천원에도 미달하여 기본 평점으로 매우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평균인원당 순사업비 집행액)은 2011년 9,063천원, 2012년 7,697천원, 2013년 7,599천원, 2014년 10,536천원, 2015년 13,44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7,092천원으로 크게 감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1인당 순사업비 집행액 실적 추세는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써 적절치 않아 지표개선이 요구된다.

3. 재무예산성과

1)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1.925%	93.540	2	1.871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 나눈 예산집행률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비집행률 실적은 91.925%로 직전 년도(2015년) 98.501%에 비해 다소 낮은 예산집행율로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87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정부정책방향에 따른 경영효율화 추진, 상시적인 모니터링, ERP를 활용한 사업관리 등 철저한 예산관리로 91.925% 집행하여 목표대비 실적 평가방식의 평점 93.540점으로 지표 가중치 2점 만점에 1.871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5년 98.501%에서 2016년 91.925%로 다소 하락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하향, 편차)	최고: 21.508% 최저: 29.735%	19.953%	100	8	8.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사업비(매출액) 중 관리업무비 집행액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관리업무비 비율은 매출액(전체사업비) 대비 19.953%로 기준치(전년도실적과 직전3개년평균 중 낮은) 24.250%에 대비 4.297%p 감소하여 지표 가중치 8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도 관리업무비 집행액은 9,5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97%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사업비(매출액)은 47,9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76%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관리업무비율은 19.953%로 전년대비 4.297%p(17.72%) 크게 감소하여 목표부여 방식에 의한 최고목표치 21.508%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로 평점 100점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8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관리업무비 비중은 2011년 32.468%, 2012년 28.275%, 2013년 28.610%, 2014년 26.231%, 2015년 24.250%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21.508%로 낮추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임금피크제 포함)

(1)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정책 및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기관이 도출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에 4개 과제, 합리적 복지제도 구축에 3개 과제, 지속가능한 임금 피크제 운영에 4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11개 과제는 각각 하위 성과지표로 연계되고 있는데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에 4개 지표, 합리적 복지제도 구축에 3개 지표, 지속가능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2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 도출과정과 지표체계는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략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보수체계 단순화”의 경우,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전략에서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계획 및 개별 성과지표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목표는 전체 개념도의 성과지표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면서 ‘16년도 세부 목표에는 다시 포함되어 있으며 실행계획에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표관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기관이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SWOT 분석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출된 전략과제와 분석결과의 논리적 연계 및 중장기 기관 운영 전략 하에서 보수체계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2.994%로 정부가 제시한 총인건비 인상률 3.0% 범위를 준수하였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12월 7일에 노사합의, 2016년 12월 14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급 비중은 총연봉의 20%이상으로 하고 6급의 경우 총 연봉의 15%로 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확정하였다. 기관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TF팀을 운영하며 수집된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한 항목에 대한 우선 협의, 직군별 성과지표 발굴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당사자 처우 개선 등 점진적

제도 고도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개인별 성과목표 수립과 부서 단위의 성과 목표수립 및 관리를 성과연봉제와 연계 운영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수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시행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복리 후생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복리 규모를 정부 권장 수준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 폐지된 항목에 대한 점검 및 재도입 방지, 감사실의 반기 1회 모니터링, 인재개발부를 중심으로 분기 1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특히 리스크 기반 감사계획을 수립한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복리후생 관리 노력으로 확인된다. 2016년 기관은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위험수당 인상, 복지포인트 신설, 명절 휴가비 인상, 교통보조비 인상 등을 시행하였다.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도입 시기과 관리 방법은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임금 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내부 소통 및 합의 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15년 8월 20일 노사합의, 동년 10월 1일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도입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2016년 7월부터 제도가 적용되었고, 2회에 걸친 제도 개선 이후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년보장형으로 설계된 점은 인정되나 장기적으로 현재 퇴직 전 1년으로 되어 있는 적용시기를 중장기적으로 퇴직 전 3년까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년대비 제도 개선 실적이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안정화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 지금까지 기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보수 및 복리 후생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B0 등급으로 평가된다(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은 총점에 포함).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인상지침	목표부여	3.00%이하	2.994%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정부의 2016년 예산편성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기준 3% 이내인 2.994%를 달성하여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정부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2016년 총인건비인상률은 2.994%로 정부기준(3.00%기준)을 준수하였다.

3) 노사관리

(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 기관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6년 대·내외 환경변화 및 분석, 임직원 및 노동조합 인터뷰, 우수기관 벤치마킹,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을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원칙적 노사협력’, ‘신뢰의 노사관계’, ‘상생의 노사문화’라는 3대 전략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9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관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선진화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기관은 ‘계층별, 직종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실행과제로 설정하고 방역·위생·검역 등 직종별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렇지만 기관은 ‘노사협의회 운영(횟수)’를 계량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보다는 노사협력수준 또는 신뢰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 기관은 노사공동TF 구성, 기관장의 노동조합 행사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노력, 노사 공동의 사회공헌활동 등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정책 이행, 무분규 단체협약 체결, 호봉인정 범위, 비상근무시 경비지원, 행정편의주의 인사업무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전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노사협력을 통한 직원만족도 상승 등을 측정할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관은 노사협력 수준 또는 이와 같은 노사협력을 통한 직원만족도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이 경영방침과 연계하여 소통의 4대 원칙(원칙·책임, 신뢰, 성과창출, 합리성)을 정하고 각각의 원칙에 부합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의사소통은 노동조합과의 의사소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기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관으로서는 현 단계에서의 소통채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와 같은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소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이었던 중장기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한 점과 외부전문가와 내부담당자의 협업을 통해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단위별 필요한 노사관계 역량이 무엇인지 필요역량을 정의한 이후 이를 중장기 역량강화 계획과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2016. 12. 29.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제38조 제2항 정원 축소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체교섭(보충교섭)에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한다는 조항을 단체교섭(보충교섭)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다. 기관은 제34조 제2항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적사항이도 본부간 전출·입에 직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여전히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단체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또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제5조 제1항 조합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단체협약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 제3항 조합의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기 동안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 제34조 징계 재심 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삭제한 실적이 있다.

- 그렇지만 개정 내용 중 제10조 제1항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범위에서 지부 상 집회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제14조 제2항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대법원판례보다 넓고,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31조 정당한 쟁의행위만 보호하던 규정을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불법 쟁의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만든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49조 신설된 성과급 개선 조항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기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노사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C 등급으로 평가된다.

II.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 · 활동 · 성과 종합평가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 사업 선정을 위해 경영환경 분석을 시행하여 3대 전략 목표를 도출하고, 10대 전략과제 풀을 작성한 후 중점전략과제와 주요사업을 도출하였다. 중점전략과제 도출은 기여도, 시급성, 대표성, 요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을 취득한 11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핵심전략과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가축방역 실현 분야에서 5개, 철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고도화 분야에서 3개, 수입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분야에서 2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이 각각 가축방역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도축검사, 수입식용 축산물 검사) 등 2개의 주요 사업으로 재정리 되었다. 주요 사업의 선정과 목표 설정 과정은 전년도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기관 설립 목적 분석, 경영여건 분석, SWOT 분석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SWOT 분석과 전략목표, 전략과제, 주요사업 선정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서 향후 보다 정교한 목표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관의 약점으로 분석된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 미구축”은 WT 전략에서 기존 조직의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 목표와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중점 전략과제, 주요 사업 항목으로도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 기관의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실행계획 수립의 논리적 연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 풀의 관리와 실제 성과지표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 운영 현장의 지표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힘들고, 비계량 지표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의 난이도를 반영한 지표의 실행과정에서 비계량 성과로 연계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성과 지표 풀의 관리 및 성과지표 선정과정에서 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선정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등 직무 수요에 대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사업계획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수요에 따라 정책 집행 방법에 대한 주무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한 사업 시행 수단의 선택 및 개발 등은 매우 중요한 바, 향후 이 분야의 체계적인 목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 상황을 보면,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지원과 시료채취에 전체 인원의 48.8%인 336명이 배정되어 있고, 가축 방역에 42.2%인 291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예산의 경우 가축방역에 263억원 축산물 위생에 154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바, 이는 직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한 국민·고객중심의 사업 우선 순위 및 자원 배분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실행은 실질적으로 고객 중심 사업 우선 순위 배분 결정과 자원 활용이 기관 고유의 미션과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AI 발생 및 확산 등 질병의 분포와 확산 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대응책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상시화 되다시피 한 가축 및 가금 질병에 대해 검사 및 시료채취 증가 등 늘어나는 방역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질병 유형별, 지리적 특성별 방역 수요 분석을 통한 인력 배치 계획, 긴급 배치 및 이들의 성과인정 제도화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분석과 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긴급 상황에 따른 목표 관리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포함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보아 기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전략, 핵심 성공요인, 세부 실행 과제의 논리적 연계 및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주요 사업이 법률과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에 의해 시행되는 특성을 보여 그 재량 측면에서 제한적인 점은 인정되나, 기관의 체계적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별 환경 분석 및 대응 능력 배양, 세부 시행과제별 자원 배분과 운영은 기존 운영 체계의 범주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추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별 모니터링 계획은 주로 부서별 점검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구분하고 모니터링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환류되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이 설정한 주요사업 중 가축방역 사업의 실행을 위해 설정한 세부 실행과제들은 당초 목표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부합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채취 활동의 경우, 시도 가축 방역기관과 협력적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예찰과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해 예찰 효율화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 수집된 자료를 특별관리 추진의 데이터로 축적해 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2016년에는 질병 발생 및 정부 정책 변화로 당초 계획 대비 202%에 달하는 247,000호를 예찰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는 2013년 대비 거의 1.9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서 예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양적 실적의 증대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예찰 품질, 예찰 인력의 피로도, 예찰 지속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초동 방역의 경우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한 AI 등 가축 관련 질병의 발생 빈도에 따라 증가한 초동 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동방역 팀의 인원 구성을 1-3명으로 유연화하고 시도별로 팀 운영을 최적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AI 동시 다발 발생으로 인한 초동 대처 대응능력 개선을 위해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초동방역팀 소독 실시 의무, 상주위치, 철수 시 행동요령 등을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한 점이 인정된다. 전화예찰의 경우, 기관의 예찰 건수는 전년대비 742건 증가하였으며,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예찰을 시행하는 등 전략적 예찰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농가 수용도 향상을 위해 예찰 주기를 조정하고, 중규모 농가로 예찰을 집중화 하는 등의 조치를 위한 것은 예찰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시행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은 6,426건의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문상담원이 40명임을 고려해 볼 때 1인당 평균 160건 정도의 상담이 수행된 것으로서 휴무일 등을 고려하면 1일 평균 1건 내외의 상담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업무 성과 관리와 함께 상담 후 조치 등 환류 메커니즘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대응 능력 관리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주요 사업 중 축산물 위생사업의 세부 실행과제는 검사원 역량강화 및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 극대화(53p), 절식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축산업 경제성 및 안전 축산물 공급 기반 확대(55p),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도축검사의 신속·정확성 제고(p.56),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 사업과의 협업(시료채취)(57p) 등이다. 기관이 제시한 세부 사업들은 그 표현에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이 추진한 “검사원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가축 전염병 검색 강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

로서 제시된 지표상 그 1차 성과는 교육시간과 교재제작 배부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과 대비해 볼 때 기관의 성과 관리에 질병 환경 변화에 따른 특별한 프로그램 최적화 노력이나 개선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노력한 내용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지표를 고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환경 수준 향상”사업은 도축장 근무 검사원의 근무 시설 개선, 기자재, 집기류 등의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향후 동일한 형태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절식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축산업 경제성 및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은 가축 출하 전 절식 요령을 개발 보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현재 초기 단계 사업 실적으로는 그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제 농가에서 절식 요령을 준수하게 할 강제력이 없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정치로 정량 성과를 제시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의 개선 보완으로 도축검사의 신속·정확성 제고”사업은 도축장 검사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일부 법령 개선을 통한 검사관 업무대행 구조 마련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얼마나 많은 초과 수요가 기관의 대응으로 해소되었는지, 그 비계량적 노력 정도와 성과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과의 협업(시료채취)”사업은 시료채취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목표 성과를 초과달성한 점이 확인된다.

- 기관의 주요 사업 중 수입식용축산물 현물 검사 사업은 2개의 세부 실행과제가 수행되었다. “불량·유해 축산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검사 전문성 강화” 사업은 교육 강화 사업이며,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에 대한 현물 검사를 표준화하는 것과 함께 전년도 사업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금년도의 목표 성과를 달성한 점이 확인된다.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사업은 해외 질병 발생 정보 공유와 해당국 수입육에 대한 집중 관리, AI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된 식품용란 수입 검사 체계를 수립한 점이 인정된다. 해외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에 대한 통계관리로 검사의 적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및 캐나다산 우육에 대해서는 BSE 위험국이므로 2015년 9,243건에서 2016년 11,261건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관리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이 BSE 위험국 및 방역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 확대 검사 등을 통해 중점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어 검사 확대에 의한 반작용 등을 고려한 성과 검토 및 제시를 제안한 바 있으나 검사 건수 이외의 비계량적

성과 관리(샘플 선정 방법, 검사 방법 등)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방역 활동에 투입하는 인력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시료 채취 업무 92%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서 추가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증원된 55명의 인력에 대해서도 37개소에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수입식용 축산물 현물 검사 등 제반 사업 영역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기관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가축 방역 사업의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비계량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초동방역 역량제고 사업의 성과는 주로 투입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제시된 비계량 성과의 경우에도 해당 지표의 성과 달성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년도에 지적된 업무 난이도, 업무추진과정의 현장 갈등 혹은 문제해결 과정의 난이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경우 해당 사례의 적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계량 지표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확인되고 있다.
- 축산물 위생사업 분야에서 제시된 비계량 성과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검사원 교육 성과로 이상 보고율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 보고율 향상이 오직 교육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그 비계량적 성과 또한 쉽게 측정하기 어렵다. 향후 이는 사업 추진의 질적 난이도 및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비계량 관리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식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로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추정치로서 실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관이 시행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는 실제 그 인력의 수는 8명이지만, 업무 공백 최소화와 직원 사기 진작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육아휴직 해당 직무의 유형과 범위, 대체 인력 모집 과정의 난이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와 채용이 무산되면 발생할 수 있었을 직무 공백 및 그로 인한 영향을 제시해 주는 방식의 접근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수입식용 축산물 현물 검사 사업의 비계량 성과로는 워크숍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한 업무능력 고도화 결과 나타난 검역결과 향상이 인정된다. 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가 업무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식용 축산물의 현물검사 기준 표준화는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비계량 성과로 제시되는데 따른 업무 난이도의 입증을 위해 향후 비계량 관점에서 추가적인 관리 난이도 및 실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이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량 성과목표치 설정,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연계, 지표 개선 및 대체 지표 개발 등으로 환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기관의 환류활동은 자체평가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된 실적을 살펴보면 1년 단위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형태의 관리 결과가 확인된다. 이는 전년도에 지적된 환류 구체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 환류내용의 구체성과 개선 수준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환류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 사업계획 반영이나 자원 활용 등의 측면에서 전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단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기적인 환류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요사업별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 사업에 대해 비전, 전략, 미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계량지표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량지표의 선정은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성과 목표에 따라 지표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SMART 기법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목표 설정은 대부분 추세 목표치 부과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환류하는 등 지표 고도화 및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전년도 대비 시업관리 시스템 수준의 향상도가 높은 편이며, 시스템 안정화가 진행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의 주요 사업 관리는 B+ 등급으로 평가된다.

2. 가축방역사업

1) 시료채취 (5대질병) 달성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시료채취 량/ 목표(계획)채취 량	목표대실적	1,055,380	1,005,582	96.225	8	7.698

나. 평가내용

- 매년도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주요 5대질병에 대한 시료채취 사업의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2016년 시료채취 수 실적치는 1,005,582건으로 목표(계획)량 1,055,380건에 다소 미달하는 95.282%달성도로 목표대실적 평점 96.225점으로 지표가중치 8점 만점 중 7.698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AI·구제역 등 재난형 악성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으로 목표치 대비 95.282% 달성하였다.
- AI·구제역 조기검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료채취 등 농장예찰 강화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시료채취 목표달성도는 2011년 100.004%, 2012년 100.035%, 2013년 100.003%로 꾸준히 100%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최근 통제불가능한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2014년 95.652%, 2015년 93.860%, 2016년 95.282%로 최근 3년간 목표량에 다소 미달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2) 시료채취 (AI) 달성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시료채취 량/ 목표(계획)채취 량	목표대실적	115,345	124,270	100	4	4.000

나. 평가내용

- 매년도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A.I질병에 대한 시료채취 사업의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2016년 시료채취 수 실적치는 124,270점으로 목표(계획)량 115,345점을 초과하는 107.738%달성도로 목표대실적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4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AI·구제역 등 재난형 악성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으로 목표치 대비 107.738% 초과달성도를 보였다.
- AI·구제역 조기검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료채취 등 농장예찰을 강화하였다.

라. 추세분석

- AI 시료채취 목표달성도는 2016년 신규 집중관리 질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2016년 목표대비 107.738%의 초과달성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3)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보고건수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8,403.09 최저: 4,404.91	7,159	75.107	5	3.755

나. 평가내용

- 2016년 신규지표로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 2016년 결과보고 건수 7,159건으로 직전년도(2015년) 실적(6,404건) 대비 755건(11.79%) 향상된 실적으로 목표부여 편차 최고목표 8,403건에 다소 못미치는 실적으로 목표부여 평점 75.107점으로 지표가중치 5점 중 3.75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신규지표로써 AI·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조기검색 및 확산방지를 위한 농장예찰 강화하였다.

라. 추세분석

-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건수는 2013년 5,463건, 2014년 3,976건, 2015년 6,404건으로 최근 활동을 강화하여 2016년 7,159건으로 크게 증가한 활동 실적을 보였다.

2. 축산물위생사업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이상보고건수/ 연간도축두수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25.551% 최저: 18.001%	28.190%	100	10	10.000

나. 평가내용

- 연간 도축검사(소, 돼지) 두수는 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축되는 가축에 대하여 기관이 참여하여 도축 가축에 대해서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표로 2016년 연간 도축검사 건수 대비 이상보고 건수 비율은 28.19%로 직전년도 대비 6.414%P(29.45%) 크게 증가하여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25.551%를 크게 초과하여 목표부여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1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검사인력의 증원과 전문 교육 진행을 통하여 검사두수 대비 이상보고 건수가 2015년 대비 29.45% 증가하였다.
- 검사원 양성교육 시 실습교육 시간 증대 및 실습축종의 다양화를 통하여 신규 검사인력의 증가에 따른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도축검사 두수 대비 이상보고 건수의 비율은 2012년 14.627%, 2013년 17.182%, 2014년 19.029%, 2015년 21.776%에서 2016년 28.19%로 최근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4. 수입식용축산물사업 현물검사사업

1)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적발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이상보고건수/ 현물검사건수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7.556% 최저: 6.826%	7.792%	100	8	8.000

나. 평가내용

- 수입축산물 현물검사를 통한 위해수입축산물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현물검사사업 중 이상보고 적발률로 7.792%를 달성하여 최고목표치 7.556% 대비 초과달성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8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수입축산물의 수입은 시장경제와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수출국 다변화로 이상보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본부는 관리수의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물검사 이상보고율은 7.792%이며 전년대비 0.601%p(8.36%) 향상하였다.

라. 추세분석

- 현물검사 이상보고 적발률은 2011년 6.236%, 2012년 5.582%, 2013년 7.227%에서 2014년 6.823%, 2015년 7.191%에서 2016년 7.792%로 크게 향상되었다.



II.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평점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평가제외)	5		4.270	4.270
	2. 업무효율 - 사업수행 효율성	5		5.000	5.000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1.719	1.719
	(2) 계량관리업무비	8		6.104	6.104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8	B ⁰		5.600
	(2) 총인건비 인상률	5		5.000	5.000
	(3) 노사관리	7	B ⁰		4.900
	경영관리 합계	40		22.093	32.593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25	A ⁰		22.500
	2.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1) 검사생산성	10		9.757	9.757
	3.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1) 농가 소득안정 기여율	15		15.000	15.000
	4.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5		5.000	5.000	
(2) 자조합 우선투자비율	5		3.253	3.253	
	주요사업 합계			33.010	55.510
	전체 합계	100		55.103	A

I. 경영관리

1. 고객만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PCSI 2.0 고객만족도지수	절대지수 평가	100	85.400	85.400	5.000	4.270

나. 평가내용

-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적용에 따라 '16평가년도 PCSI 2.0 조사결과와 전년도 점수의 향상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년도 조사결과 절대지수만 사용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4점으로 고객만족도 절대지수 평점에 따라 85.40점을 획득하여 5점 만점 중 4.27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상시 CS 관리노력으로 2015년 PCSI 2.0 신규측정에 의하여 89.20점을 달성하였으나, 2016년 다소 하락한 85.40점의 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최초 적용으로 2015년도 89.20점, 2016년 85.40점을 달성하였다.

2. 업무효율: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 평균인원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62,806,564 최저: 25,122,938	69,389,378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균인원 1인당 기관의 순사업비 금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수행효율성 실적은 평균인원 1인당 69,389천원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62,807천원을 크게 초과하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 가중치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 순사업비는 펀드운용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총수익(사업비)는 4,718백만원으로 직전년도(2015년) 대비 1,511백만원(32.01%) 크게 증대하였으며, 정책자금검사규모의 확대 등의 사업확장에 따른 2016년 평균인원은 전년대비 4.15명(6.11%)증가한 68명으로 사업수행효율성(1인당 순사업비집행액)은 전년대비 19,144천원(전년대비 27.59%) 크게 향상되었다.

라. 추세분석

- 사업수행효율성은 2011년 14,192천원, 2012년 25,789천원, 2013년 32,562천원, 2014년 42,251천원, 2015년 50,245천원에서 2016년 69,389천원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재무예산성과

1)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82.450%	85.960	2	1.719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 나눈 예산집행률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비집행률 실적은 82.45%로 목표치 100%에 17.55%p 다소 미달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71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 사업예산은 직전년도 대비 580,515천원(24.45%) 증가하였고, 사업비 집행액 증가액은 755,061천원(38.57%)으로 예산증가율을 초과하여 사업비집행률은 직전년도 67.042% 대비 크게 증가한 82.45%로 목표대실적 평가방식의 평점 85.96점으로 지표 가중치 2점 만점에 1.719점으로 조금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6년 사업비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82.45%로 지표 달성도는 85.96점을 획득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하향, 편차)	최고: 15.363% 최저: 21.223%	17.099%	76.296	8	6.10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전체사업비) 중 관리업무비 집행액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관리업무비비율은 매출액(전체사업비) 대비 17.099%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15.363%에 대비 다소 못미쳐서 목표부여 평점 76.296점으로 지표 가중치 8점 만점 중 6.10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도 관리업무비 집행액은 1,72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63% 증가하였으나, 전체사업비(매출액)이 펀드수수료수익의 증가 등에 따라 10,0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62% 증가하여 2016년 관리업무비비율은 직전년도 대비 0.22%p(1.27%) 감소한 17.099%로 목표부여 방식에 의한 평점 76.296점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8점 만점에 6.104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관리업무비비율은 2011년 22.801%, 2012년 19.129%, 2013년 20.382%, 2014년 17.922%, 2015년 17.316%에서 2016년 17.099%로 꾸준히 감소시키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보수제도와 복리 후생 제도의 합리적인 설계와 개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여건 및 정부정책을 토대로 SWOT 분석 및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방만경영정상화 계획,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준거한 운영실적(외부지적사항 및 조치실적 포함)과 개선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1) 보수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정부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고, 노사협상 등 4 단계별 추진과 성과연봉제 제도 설계 및 확대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천으로 어느 정도 성과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졸자 1명에 대한 승진 및 정규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특히 성과평가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최초로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활성화한 점 등은 긍정적이며 실적으로 인정된다.

○ 공정한 성과보상을 위한 연차별 추진목표에서 정부의 칸막이 예산구조 해소를 위해 '18년 농금원 3개 보조금 예산을 통합필요성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형성의 실적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과연봉 비중 20% 이상 유지가 '18년의 추진목표로 설정함은 성과연봉의 확대 추진에 대한 도전성이 미흡한 편으로 2017년도에 좀 더 적극적인 권고안 준수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계별 추진 중 노사협상의 노사실무교섭에서 합의가 보류된 원인과 수습대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한 향후 설계방향을 설정한 점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운영 방안 검토 및 제도 설계안(보직자에 대한 3개 등급 직무급 검토 등)으로만 제시되고 실제 2016년에 실천한 추진 성과들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전 직급에 성과연봉제도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이드라인이상의 제도 설계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지만 애매모호 하다. 예를 들면 4급이하 성과연봉제에 대한 수당의 경우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추가한 설계안이 정부권고안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 경영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성과평가 제도운영의 합리성’(12쪽: 1-2)은 연봉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PCDA 관점의 성과관리체계 운영의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과 연봉’ 용어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물론 평가의 수용성제고를 위해 평가점수를 최초 공개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제시함은 바람직하나 역시 ‘성과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평가편람 기준에 본 설명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포함한 것은 과거 보고서를 원용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성과 연봉제 확대 노력(성과중심 문화 조성)’(12쪽: 1-3)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평가편람 기준에 제시된 ‘성과연봉제 기준 및 적용대상 확대 노력’에 초점을 두어 실적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고졸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으로 정규직과 차별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용한 점에 대한 노력도는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무기계약직 대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주무역’으로 대외직명 호칭을 변경하고, 임금 협상시 정규직 대비 높은 인상률 적용 및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 기회 부여, 육아 휴직 지속 보장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고졸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받는 보수 및 복리 후생에 대한 획기적인 추진 실적은 미흡한 편이다. 고졸자의 1명 승진이 전부이고, ‘15년 실적과 비교해서 기관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개선한 실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고졸자 및 무기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은 ’15년과 동일하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15년과 ’16년 모두 ‘해당 없음’이다. 권고안 수준을 넘어 도전적인 새로운 아이টে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복리 후생 정상화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편람 기준에 준거한 평가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복리 후생제도의 합리적 운영’에는 편람상 지표인 ‘정상화 계획 실적’과 ‘정상화 운용 지침 및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분리해 세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하면 대부분 복리후생 항목들이 지원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지침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도 준수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금기금은 미출연). 다만, 급여성 학자금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 초중고 공무원 수준 지원은 타당하나, 지침의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 충돌함으로, 기관이 초

중학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일체 없다고 현장실사시 확인한 바, 보고서 14쪽의 '운영실적 좌동'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 기관은 복리 후생 제도 개선의 적정성을 위해 방만경영 추진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시전담조직을 운영함은 물론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도 상당히 인정된다(2015년 55개 점검항목 개선 완료 후 2016 복원 zero). 특히 동일지 출장시 차량동승, 건강검진인정 휴가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복무행태 강화) 등 가이드라인에 미포함 항목 추가 발굴 노력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관련해 '16년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지 않고, 상시모니터링 채널을 통한 의견 청취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방만경영 정상화 전담조직 운영 실적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장관표창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은 바람직하나 근무성적평가시에 가점 부여 여부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관의 복리후생비 규모 적정성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타공공기관(4개)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농금원이 55%수준이라 비교 판단함은 타 기관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인 비교일 수 있다. 농업교육문화사업기관은 2배의 인원이지만 1인당 복리후생비는 더 낮은 편이다.

- 복리후생제도 개선결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영혁신위원회와 감사역을 활용한 자율점검을 통해 폐지·축소된 복리후생 항목대체 신설을 방지하고 있는 점, Alio 및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복리후생제도 현황을 투명성 있게 제시함은 매우 긍정적이다. '16년 총 17회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실적은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에 적극적인 방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안건 등은 다소 미흡한 편이며, 경영혁신위원회의 노사발전공동협의회로의 통합 결정은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경영혁신'의 상징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비금전적 복리후생 개발은 긍정적인 바, 직원복지제공을 위해 2개 의료재단과 `16.7월 건강검진 협약(MOU)을 체결하여 임직원 및 그 가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부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직원복지를 향상시킨 사례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권고안을 100% 준수하는 임금피크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도입완료('15.8.17)한 성과는 인정된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 정원 반영시기 및 별도직군 전환시기를 일치시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 기관 특성 및 연령구조, 직무특성, 예산구조(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분=신입사원 인건비 원칙), 적합직무 등을 토대로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설정하고 직원 수용도를 고려한 APFS '정년연장형'제도를 선택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혼재(18쪽, 19쪽)하고 있어 명확한 명칭 제시가 필요하다.

○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8년까지 신규인력 13명을 추가 채용할 제도 설계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중장기 계획 실천을 위한 중장기재원조달계획이 단순히 임금피크 절감재원만으로 가능할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제시와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별도직(별도직군) 전직 예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전자와 관련된 임금 조정방법으로 기본급 50.1% 감액(총임금 기준 45%)의 산출과정은 현장실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16~'28년까지 13년간 임금피크가 도래하는 인원 10명의 평균임금과 신규채용 인력의 임금 소요액을 분석해 산출). 또한 직무특성 분석을 통한 임금피크 대상자 직무개발 및 운영을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기준(독립성, 연속성, 용이성, 활용 가치를 고려한 적합직무 판단기준 등)을 제시한 점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의 전반적인 운영 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B0 등급으로 평가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인상지침	목표부여	3.00%이하	2.287%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정부의 2016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기준 3.00% 이내인 2.287%를 달성하여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정부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통해 총급여액 증가를 억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정부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2016년 총인건비인상률은 2.287%로 정부기준(3.00%기준)을 준수하였다.

3) 노사관리

(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 기관은 정부정책, 구성원 의견, 기관장 의지 등을 반영하여 선진화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을 체계화하였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노동조합의 의견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노사관계 우수기관 인증 등 1회성 과제를 지양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고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실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 파트너십 추진’, ‘열린경영 및 소통강화’, ‘리더십·노무역량 육성’ 등은 실행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추진전략과 동어반복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실행과제별 세부 이행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 기관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폐지하고 기본연봉 인상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수(41명)를 감안해볼 때 현재 사용하는 면제시간을 428시간에서 1,70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불가를 통보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직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기관은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도입하였고 노사 공동의 부패방지 및 청렴운동을 추진하여 ‘16년 부패방지·청렴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소통채널을 상시화하고자 하였고 단체교섭 전 노사 실무 워크숍을 통해 노사간 쟁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갈등 관리의 기반을 구축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도시락미팅, 직원간담회 등 상향식 의사소통 채널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또한 기관은 기관 HRD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간부진,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전직원에 대한 필요역량을 정의하고 해당 필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육대상별 인당 교육시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 구성원의 균형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이 2015. 7. 30.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제29조 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관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31조 제3항 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관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위 단체협약에 대하여 또한 『제8조 조합원의 가입·제명·탈퇴의 사실 여부는 본인에게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조합의 확인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17조 제2항은 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선거운동기간을 통상근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수가 37명에 불과한 소규모 노동조합에게 선거운동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통상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17조 제3항 조합활동 중 사고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대법원판례보다 넓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조합원 99명 이하인 경우 면제시간을 최대 2,000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한선이 2,000시간이고 그 범위 내에서 노사가 조합원 수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면제시간을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 37명에 불과한 기관이 면제시간을 최대한도인 2,000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

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채용제한을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반해 제70조는 쟁의기간 중 무조건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용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보충협약 등의 형태로 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제8조, 제17조, 제29조, 제70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잠정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잠정합의까지 이루어낸 노력은 인정되지만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만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잠정합의한 것만 가지고는 개선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지금까지 기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노사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B0 등급으로 평가된다.

II.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 · 활동 · 성과 종합 평가

- 세부 주요 사업 평가에 앞서 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는가 하는 적정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관 설립목적과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사업선정에 대한 분석은 논리적인 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목적(미션) 및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검토도 비전을 포함한 기관의 비전전략체계도와의 논리적인 흐름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세부평가 제목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의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나 하는 질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4단계 주요 사업 선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편이다. 기관 업 선정에 앞서 기관 전체의 내·외부 환경분석이 필요하다. 2단계의 기관 업 선정보다 3단계의 사업환경분석이 아닌 기관전체의 내외부 환경분석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너무 3개 사업에 치중한 SWOT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제2단계에서 기관 업으로 선정해 놓고, 제4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기관 업”, “주요 사업명”에서 동일한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단계별 차이가 애매모호하다. 2단계의 자원배분 용어보다는 기능배분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검토결과에서 정부정책과 주요사업간의 연계는 bottom-up이 아닌 Top-Down으로 선행 후행 인과관계(cascading) 되는 화살표 방향 표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35쪽). 특히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없었는지에 대한 제약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전반적으로 3개 사업 즉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선정을 위한 4단계의 방법론적 접근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2단계의 기관의 업 선정(설정과 선정을 혼용하고 있어 구분 필요. p.34)의 기준과 누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조사방법에서 부서장들의 인터뷰, 사업부서 의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광

범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타이틀에 타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지만 표의 조사방법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P.34). 자원배분도 ‘기능별 자원배분’으로 수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언급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제3단계에서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p.35). 물론 각 사업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본 파트에 제시하고 각 사업에서는 제목과 쪽수만을 제시함이 효율적이다.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선정을 통해 정부정책 달성에의 기여 연계성은 적절하나, cascading 되는 도표 흐름의 화살표 방향은 Top-down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35).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전략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과목표 ‘검사대상 확대 및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중 효율성 제고는 적정성 분석에서 ‘전략과제’하에 제시되어 있다. 성과목표와 전략과제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p.3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SMART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선택 되는 기준이 타당한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종 설정된 지표들이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을 제외하고는 산출·결과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출·결과지표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다(p.36). 또한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치(수준) 표기는 명확해야 할 것이다.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서 “목표 수준” 또는 “목표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목표치 설정은 도전적이지만 합리성/타당성 측면에서 목표치 설정시 작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보다는 과거 3년 추세치를 평균해 설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최근 3년간 최고 증가율을 상회하는 목표치를 설정함이 합리적이라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p.36). 비계량 성과 지표 설정은 긍정적이며,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통계치의 근거(작년대비 8.3% 증가한 90.2% 등), 조사설계 내용 및 내부 또는 외부 조사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사업환경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된다. 또한 자원배분계획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수립함은 긍정적이며 특히 국회 등의 지적사항인 검사기관수 확대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통한 사후관리 및 현장 인력을 보강한 점도 개선 성과로 인정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전년도 성과분석 및 사업환경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함께 목표치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지표 pool을 구성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한 점과 비계량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한 점도 바람직하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재해 다양화에 대비한 농업 현장 중심의 보험 상품 구조 개선,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손해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및 재보험 기금운영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또한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조직·인력 자원배분 계획 및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 수립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2016년 성과목표 제시는 ‘농업재해보험 상품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사업 내실화’1개로 표시하기 보다는 이질적인 것이라면 한 개의 전략목표에서 상품개선과 제도개선 2개의 성과목표를 구분해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핵심성과지표 도출과정의 선정기준과 SMART 기법 적용시 결정 주체들이 누구인지,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두 참여해 결정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성과지표도 산출·결과지표들로 선정되었다고 기술했지만, 결과지표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는 바 선정된 지표를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구분해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서 “목표치” 또는 “목표 수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다 (p.48).

- 또한 계량지표 중 ‘기준 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목표치”가 작년도와 동일함에도 도전적이라고 기술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한국은행 기준금리 하향에도 불구하고), 비교 기준이 작년을 포함한 3개년 평균치를 제시하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사업>의 경우 전년도 성과분석 및 사업환경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함께 목표치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지표 pool을 구성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한 점과 비계량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한 점도 바람직하다. 다만, SMART 기법은 선정된 성과지표의 체계구성,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측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핵심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해관계자들 중 누가 어느 정도 선정에 참여하는지, 더 효과적인 선정방법 등은 없는지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1개의 전략목표에 성과목

표를 2개로 분류해 '농식품펀드의 안정적 결성'과 '투자지원사업 내실화'로 구분하고, 하나의 성과목표로 기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목표설정의 적성성에서 '목표치' 또는 '목표수준' 설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p.62).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전년도 성과분석을 토대로 비계량 신규자펀드 결성 규모 등의 계량지표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전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 명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바 '제도개선 노력'보다는 구체적으로 '운용사 관련 규제비율 완화', '농식품모태펀드 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SWOT 분석을 토대로 '출자재원 확보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의 4개의 실행과제를 4분기별 일정계획과 함께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지원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의 자원배분계획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정책자금검사 '전산지원시스템'에 의한 검사기관 수 확대, 신규사업분석 및 신규지적유형 발굴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비금융기관 취급 용자금에 대한 검사 범위 확대, 자율점검 내실화에 의한 검사주기 단축(10년→ 4.7년) 등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활동 실적은 인정된다. 또한 국회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사용을 위한 정책자금 관리·감독 강화요구로 대출기관 교육, 검사결과 공지 등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검사대상 대출금 대비 지적 금액 비율 감소('15년 1.5%→'16년 1.1%) 등이 긍정적인 실적은 인정된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조직 및 인력관리 활용의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검사원 1인당 점검기관수가 3.7개로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중점 점검대상 대출금 통보를 2주전에서 3주전으로 확대 하고, 사전 유선전화를 통한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해 자체점검 실적을 유도 하는 등 변화에 대응한 모니터링 활동과 노력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가입 연령 상향으로 고령농가 보장 범위 확대 요구 등 현장 수요 반영 및 과제 선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보험 상품구조 개선 등 4개의 실행과제(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및 재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수

익성 제고)에 대한 실적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실행과제 2)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의 효과, (실행과제3) 손해평가 규정 개정 과정 및 개정사항 설명, (실행과제4)“재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제고” 업무수행을 위한 당면과제 및 장애요인, 해결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실행과제4) 관련 보고서 기술 오류로 외부전문가 활용한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p.54)의 ‘추진성과’는 ‘추진 배경’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현장실사시 증빙자료를 통해 그 집행 실적들이 확인 및 오류정정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평가보고서 작성 기술 측면에서 사전 준비 미흡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협업과 조직관리 인력 활용의 효율화로 예산절감(약 65백만원) 및 주요사업 집중과 동일 인원에 의한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상품 개선 및 홍보 실적은 긍정적이다. 또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등의 모니터링 채널과 양식수산물 거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재보험금 적기 지급(100억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력과 성과는 인정된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실행계획에 따라 출자재원 산정방식 개선 및 출자사업 분리실시를 통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재원 207.74억원을 증액 한 점, 운영사의 재무적 부담경감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준완화(예: 일반펀드 모태 출자 비율의 ‘15년 50%한도 출자->’16년 300억 이상 결성시 60% 한도 출자) 등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4개 실행과제에 대한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실행과제 ‘투자지원사업 대상별 세분화 및 전문성 향상’의 추진성과(p.68)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에 대한 실증자료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예산절감(96백만원) 및 컨설팅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향상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조기투자 인센티브 제도 신설(1, 2년차 주목적 분야 투자금액이 의무투자비율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한 2.5%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력과 실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행과제 1.(나) “출자사업 상·하반기 분리실시를 통한 보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내용(p.65)이 어떤 성과지표와 연결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바 집행실적을 성과지표의 제시와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신규 검사기법의 개발, 부서 자체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 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발굴 등의 비계량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6년 목표를 설정해 성과를 도출함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성과지표와 목표의 명칭 설정이 미흡한 편이다. 오히려 '16년도 목표의 내용을 성과지표 명칭으로 대체하되, '제도 개선사항 발굴'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의 성과지표 명칭에 포함된 '노력'은 삭제하고, '제도개선 발굴'은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예, 부당사용 예방활동 지속 등) 비계량성과지표도 질적·결과지표이면서 목표치는 정량적·정성적인 수준들을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해 성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비계량적 성과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4개의 실행과제를 통해 계량적 성과와 함께 자율 점검 내실화, 감사역량 강화, 부당사용 예방활동 지속 등의 비계량적 추진 성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자율점검 내실화에서의 감사주기 단축(10년→ 4.7년) (p.40) 과 감사대상기관 확대에서의 감사주기 단축(5.2년→ 4.7년) (p.44) 성과도 바람직하다. 다만, 평가항목은 비계량적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주요 추진성과(p.44)에서 실행과제별 추진성과보다는 비계량 성과지표 별 추진성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실효성있는 보험상품 개선(37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매체 다양화(4→10가지), 교육의무화 및 업무영역 확대에 의한 손해평가사 전문성 제고, 국가 재보험기금 수지 개선 등의 비계량지표의 노력과 실적은 인정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비계량적 성과는 정부의 정책과제(국정과제: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와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본 평가항목은 비계량적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주요 추진성과(p.58)에서 실행과제별 추진성과보다는 비계량 성과지표 별 추진성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계량성과지표 성과는 지표의 구체성과 그 실적이 인정된다. 비계량지표도 성과 지표를 '제도개선 노력'과 '사업홍보노력'으로 설정하고, '16년 목표를 설정해 성과를 도출함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비계량 성과지표의 명칭 설정이 추상적이다. 오히려 '16년도 목표의 내용을 성과지표 명칭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농식품모태운용제도 지속적 개선, 홍보방식 다양화, 유관기관 협업 강화 3가지로). 비계량성과지표도 질적·결과지표이면서 목표치는 정량적·정성적인 수준들을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해 성

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비계량적 성과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농식품경영체 성장기반 조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본 평가항목은 비계량적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주요 추진성과(p.71)에서 실행과제별 추진성과보다는 비계량 성과지표 별 추진성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기관은 국정 감사 등 외부 성과평가와 기관 내부의 자체 감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감사원 검사 실적평가, 분기업무 추진 실적 등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자체평가시스템구축과 운영 실적은 인정된다. '15년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16년 환류 실적이 제시되고 있으며(자율점검 등), '16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17년도 환류계획도 긍정적이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외부지적 사항으로 기관의 중장기 비전전략체계의 정확한 체계도 제시와 비계량지표 중 성과목표치 설정이 가능한 것은 사업 추진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설정할 것을 '15년 경영평가단이 권고한 사항들을 조치한 점,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기능 강화 요구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실적 등은 인정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기관 내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 '15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16년 환류에서 수익성 제고 및 기재부 권장에 따른 연기금투자폴 예치비율을 확대('15년 29.5%→'16년 42.0%)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16년 자체평가 결과에서 재해보험 가입 만족도 조사 결과는 93.2%로양호한 편이다
- 외부지적 사항 환류와 관련해 기관은 '16년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17년부터'감귤'품목 기존 특정위험보장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해 주요 과수 5종(사과 등)에 적용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업성과 우수성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p.60).
-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기관은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해 '15년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16년 현장 중심의 모태펀드 지원 강화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며, '16년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7년 환류 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금액을 단순 목표 대비 실적으로 산정할 경우 목표(12%)의 적정성이 낮아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15년 경영평가단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평가 방식 및 평가 산식을 개선하여 평가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정책금융원 발주 연구용역, 자문 및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내규 개정 및 농식품부의 '미출자자산 운영지침' 제정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계량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최근연도 추세'는 적어도 3년 평균 추세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p.73).

5) 주요사업별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전반적으로 기관의 비전전략체계도 즉 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별 계량 성과지표가 3단계 절차를 거쳐 잘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pool 중에서 최종 지표 선정에 대한 선정기준 등 즉 SMART 기법 등이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에 참여한 인력이 각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SMART기법의 특성이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선정된 지표 체계의 구성 등에 초점을 두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표 유형으로 투입, 과정, 산출(output), 결과(outcome) 지표들이 있는데, 사업 전체의 성과지표가 산출·결과 지표로 구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질적인 결과지표의 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각 지표마다 그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 사업별 선정 4개의 지표별 정의 및 평가 산식은 명확히 잘 제시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검사생산성(=검사실시기관수/검사업무 종사인원),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농업재해보험의 소득안정 기여율(=보험가입금액/농업전체소득), <농식품모태펀드운영사업>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출자약정액 합/모태펀드 조성금액 합) 및 자조합우선 투자비율(=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금액/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금액) 등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
- 4개의 계량지표에 대해 자원배분수준 및 사업별 중요도 검토를 통해 가중치를 설정한 것은 긍정적이다(35=10+15+5+5). 다만, 가중치 설정이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간부 회

의는 다소 추상적임).

- 4개의 계량지표에 대한 목표치는 '15년에 비해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해 어느 정도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단순히 전년도 수준과의 비교보다는 과거 3년치 평균 추세 기준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요사업 지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성과지표 진단 및 개선방향을 도출한 결과 3개 지표는 유지하고, 자조합 우선투자비율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및 산식을 변경한 점[방법: 목표 대 실적-> 목표부여(편차); 산식: 등록 후 3년 경과 자조합 결성액 대비 해당 자조합의 일정규모 이하 경영체 투자금액-> 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 투자금액 대비 해당자조합의 일정규모 이하 경영체 투자금액]은 긍정적이다.
- 지금까지 기관의 주요 사업 대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실적·성과 및 환류 활동·주요사업 범주 계량 지표구성 적정성에 대한 비계량지표 사업 관리 및 추진의 총 성과는 전반적인 운영 실적, 일반적 수준의 추진시스템 운영과 타 기관의 평균 수준, 2015년도 실적에 대비한 상대적인 성과 개선 실적, 준정부형 공공기관으로의 이전 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A0 등급으로 평가된다.

2.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1) 검사 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검사실시 기관수/검사업무 종사인원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19.154 최저: 11.307	18.915	97.570	10	9.757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업무 종사인원 대비 검사실시 기관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16년 실적치는 1인당 18.915 검사 건으로 최고목표치 19.154건에 근소하게 미달하여 평점 97.570점으로 지표가중치 10점 만점에 9.757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은 인력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점검 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검사실시 기관수가 전년대비 29.16% 증가(자율점검 현장점검 기관수 125개를 현장검사 기관수로 환산)하고 검사업무 종산인원은 효율화 노력으로 '15년 대비 0.46명(4%) 증가하는데 그쳐 1인당 검사기관수인 생산성은 전년대비 3.68건(24.19%) 크게 향상하였다.

라. 추세분석

- 검사생산성은 2011년 9.091건, 2012년 11.710건, 2013년 12.439건, 2014년 12.506, 2015년 15.230건, 2016년 18.915건으로 꾸준히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3.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1) 농가소득 안정 기여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보험가입금액/ 농업전체소득 (직전년도)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24.430% 최저: 13.585%	25.480%	100	15	15.000

나. 평가내용

-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림업 전체 소득에 대해 재해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2016년 보험가입금액은 11,947,870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2,958,737백만원(32.92%) 크게 증가하여 2016년 농업전체소득 대비 보험가입금액은 25.48%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24.43%을 초과하는 성과로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15점 만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은 2016년 농가 꾸준한 보험가입 노력으로 2016년 생산안정기여율은 직전년도(2015년) 대비 6.45%p 증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반면, 농가소득(직전년도 농가전체소득으로 2015년 기준)은 FTA,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직전년도 대비 4,013억원 감소한 통계치를 보였다.

라. 추세분석

- 농가소득 안정기여율(농가소득대비보험가입률)은 2011년 10.693%, 2012년 14.307%, 2013년 16.008%, 2014년 15.904%, 2015년에는 19.008%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25.48%로 크게 처음으로 농가소득대비 1/4을 초과 달성하였다.

4.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당해자조합 모태펀드출자약정액/ 당해모태펀드조성액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112.031% 최저: 105.511%	122.913%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조성의 성과측정을 위해 모태펀드 추가 조성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당해 자조합 모태펀드출자약정액은 466,7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4,000백만원(28.67%) 증가하였으며, '16년 모태펀드조성액 누계 379,700백만원 대비 122.913%로 이는 최고목표 112.031%를 크게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5점 만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펀드 운용사의 의무출자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모태펀드 출자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122.913%의 높은 출자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은 2011년 99.088%, 2012년 101.879%, 2013년 101.907%, 2014년 104.648%, 2015년 106.771%에서 2016년 122.913%로 크게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2) 자조합 우선투자 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대상조합결성액 일정규모이하 경영체 투자금액/자조합결성액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83.312% 최저: 71.562%	78.179%	65.051	5	3.253

나. 평가내용

-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의 투자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16년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난 자조합 결성액 대비 일정규모 이하 경영체 투자실적은 78.179%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83.312%에 다소 못 미치는 평점 65.501점으로 지표가중치 5점 만점 중 3.253점을 달성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농식품투자조합의 소규모 농식품경영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상담센터, 농식품투자상담관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규모 농식품경영체의 발굴 및 제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운용사가 우선투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그 결과 2016년 일정규모 이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금액은 301,300백만원으로 직전년도대비 69,300백만원(29.871%) 증가하였고 전체 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 금액은 385,400백만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85,800백만원(28.638%)로 그 증가 폭이 다소 적어 직전년도 대비 향상된 투자비율인 78.179%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최초 결성된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일은 2011년 4월로 2014년도부터 3년이 경과된 최초 조합이 발생하여 2011년 71.189%, 2012년 68.823%, 2013년 71.719%, 2014년 74.259%, 2015년 77.437%에서 2016년 78.179%로 최근 꾸준히 증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III.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평점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평가제외)	5		4.525	4.525
	2. 업무효율 - 부가가치율	5		3.751	3.751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부채비율	2		2.000	2.000
	(2) 계량관리업무비	8		6.569	6.569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8	C *가점		4.800
	(2) 총인건비 인상률	5		5.000	5.000
	(3) 노사관리	7	C		4.200
	경영관리 합계	40		21.845	30.845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25	B ⁺		20.000
	2.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5		15.000	15.000
	(2) 안전사고 예방률	5		5.000	5.000
	3. AGM 예찰·방제				
	(1) AGM 예찰 활동률	4		4.000	4.000
	(2) 국내 AGM 밀도 저감 실적	6		6.000	6.000
4.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5		4.883	4.883	
	주요사업 합계	60		34.883	54.883
	전체 합계	100		56.728	A

I. 경영관리

1. 고객만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PCSI 2.0 고객만족도지수	절대지수 평가	100	90.500	90.500	5	4.525

나. 평가내용

-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적용에 따라 '16평가년도 PCSI 2.0 조사결과와 전년도 점수의 향상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년도 조사결과와 절대지수로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0.5점 득점으로 고객만족도 절대지수 평점에 따라 90.5점을 획득하여 지표가중치 5점 만점에서 4.54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2015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재부 주관 PCSI 2.0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2015년 91.4점 대비 다소 하락한 2016년 90.5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였다.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적용으로 2016년도 90.5점을 달성하였다.

2. 업무효율: 부가가치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목표부여 (상향, 10%)	최고: 94.732% 최저: 68.896%	86.666%	75.025	5	3.751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업무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간 매출액 대비 창출 부가가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부가가치율 실적은 86.666%로, 2015년 실적 86.12% 대비 0.546%p 상승하였으나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94.732%에는 다소 미달하여 평점 75.025점으로 지표 가중치 5점 만점에 3.751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의 2016년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약 88백만원(2.02%)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약 22백만원(0.43%) 감소하여 2016년 부가가치율은 전년대비 0.546%p(0.6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부가가치율은 2013년 82.26%, 2014년 82.83%, 2015년도 86.12%에서 2016년 86.666%로 조금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재무예산성과 및 계량관리업무비

1) 부채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총부채 총자본	목표부여 (하향, 10%)	최고: 2.212% 최저: 2.949%	1.225%	100.000	2	2.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재무(예산)성과인 총자본 대비 총부채 비율의 감소를 성과로 평가하는 지표로 2015년 부채비율은 1.225%로 2015년 대비 1.232%p 감소한 실적으로 최고목표치 2.212%에 보다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 가중치 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부채비율의 감소는 원인으로 총부채는 전년대비 73백만원(46.5%) 크게 감소하였고, 자기자본은 전년대비 467백만원(7.31%) 증가하여 '16년 부채비율 전년대비 1.232%p(50.14%) 감소하여 목표부여(하향) 평가에서 평가 만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부채비율은 하향 지표실적은 2013년 3.47%에서 2014년 2.831%, 2015년 2.458%, 2016년 1.232% 꾸준히 관리되었다.
- 기관의 부채금액은 2016년말 기준 84백만원으로 지표관리에 유의성이 낮아져서 재무예산관리의 대체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하향, 10%)	최고: 16.584% 최저: 22.113%	17.820%	82.117	8	6.569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전체사업비) 중 관리업무비 집행액 비중을 하향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관리업무비 비율은 매출액(전체사업비) 대비 17.820%로 최고목표치 16.584%에 대비 다소 못미쳐서 목표부여 평점 82.117점으로 지표 가중치 8점 중 6.56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도 관리업무비 집행액은 9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백만원(3.69%) 감소하였고, 전체사업비(매출액)은 5,1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백만원(0.41%)로 조금 감소하여 전년대비 관리업무비율은 0.607%p(3.29%) 조금 감소하여 목표부여 평가 82.117평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관리업무비비중은 2013년 22.285%, 2014년 22.487%, 2015년 18.427%에서 2016년 17.820%로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비계량적 평가의 목적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근무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전 직원의 업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정과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 실적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성과연봉제 운영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여, 성과연봉제 TF구성을 통한 확대 방안 마련, 노사협의회 개최 및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하여 2016년 동안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보수 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당 역시 직급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으로 단순화 하였으며, 성과연봉 비중 역시 1급의 경우 20%, 2-4급의 경우 15%로 개선하여 정부권고안을 충족하고 있어 그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2016년 간부직의 경우 17.5%, 비간부직의 경우 13.8%로 운영되었는데, 이 점은 성과연봉제 관련 기관의 이사회 결정이 12월에 결정됨에 따라 2016년의 성과연봉제 운영 실적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한정되며, 2017년 운영에 있어서는 권고안에 따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직무급 도입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무평가 및 직무급 도입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계획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다소 형식적, 선언적인 면이 없지 않고, 그 구체성의 정도가 정부권고안에 근거한 직무평가에 따른 동일직급 내 3개 이상 직무급 도입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를 보다 경영평가 보고서에 명확히 하여,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 성과연봉제의 합리적,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형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지표 반영에 있어서 계량을 80%, 비계량 20%로 변경하였으며, 직원 역량개발 촉진을 위한 교육 관련 평가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다면평가 비율을 20%로 조정하는 등 참여를 통한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참여형 성과평가의 경우 그 부작용도 예측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성과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성과연봉제의 정착을 위한 기관장 의지, 노사 협의와 직원 의견 청취, 성과연봉제 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설문 및 환류 등을 통하여 다면평가 비율의 조정, 개인 역량 강화 평가 요소 강화 등 그 노력이 실적으로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고려할 때, 가점 2점을 부과한다.
- 고졸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복리후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차별 없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점, 기간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써의 공정한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장년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확대하여 노령화 시대의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2)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방만경영에 대한 정부 지침을 지난 수년간 잘 이행하고 있으며, 2014년 조기에 방만경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조치함으로써 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 1인당 복리후생비의 인상이 없었으며, 방만경영 정상화 운영지침에서 금하고 있는 수당 및 경조사비, 보육비와 경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복리후생비의 및 경비 운영에 있어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복리후생 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과의 워크숍, 더특별한데이, 현장 소통회, 간담회, 연찬회, 사무소장회의, 노사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였으며, 일·가정 양립형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육아 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그 실적이 인정된다.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2012년 설립된 신행 공공기관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향후 7년간 0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권고안을 준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통한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환직무 운영과 별개로 별도직군 신설에 대하여서는 그 운영의 효과성을 위하여 향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청년채용 규모와 이에 따른 채용조달 계획을 설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되며, 경력을 갖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환직무 운영 방안 및 세부직무 설계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특히 기관은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기관 전반의 현황과 향후 직무내용의 변화,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년친화 직무개발 및 58세 이상 63세 이하의 기간제 전문직 근로자 직제를 신설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운영의 유연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장년친화 직장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그 실적이 인정된다.
-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7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청년취업 실적이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이나, 16년 기준 정규직 5명(정원의 10%)이 청년채용으로 그 실적이 인정되며, 16년 청년 취업지원으로 청년인턴(체협형) 2명, 대학생 근로장학생 실습생 7명, 현장실습기관 지정 및 운영(부산대) 3명의 실적을 보여 이에 대한 기관의 청년취업에 대한 노력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우수한 수준의 체계와 타기관의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C 등급으로 평가한다(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은 총점에 포함).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인상지침	목표부여	3.00%이하	2.707%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정부의 2016년 예산편성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기준 3.00% 이내인 2.707%를 달성하여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16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목표치인 3.00%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급여, 제수당, 성과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집중관리하였으며, '15년 수당 축소를 통해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13년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성과연봉 비중 확대하였으며, 방만경영 정상화의 지속 관리로 수당 및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노력을 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총인건비인상률은 2016년 2.707%로 정부기준(3.00%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노사 관리

(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노사대표 간담회 및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 및 노사대표의 의견수렴, 대내외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4대 전략과제 및 5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 및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전략 및 실행과제와는 별도로 ‘합리적·적법한 노사관계 구축’,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로 삼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와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는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노사공동프로그램 실적, 성과연봉제 확대, 역량강화 교육 등 1회성 성과관리 지표보다는 지속적 관리를 통해 고도화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 기관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한 준법성, 타당성, 신뢰성의 3대 원칙을 정립하고 기관장이 직접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기관 자체적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노사 대표자간 협의, 정기 및 임시 노사협의회, 수시 노사간담회를 통해 노사간 협력 및 예방적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고충처리 창구를 확대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구성을 개선하여 본원의 근로자 위원도 추가함으로써 본원-사무소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등 정부정책의 성실한 이행, 장년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노사 공동참여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기관은 노사협력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

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이 기존 소통채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상시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신규 소통채널을 도입하는 체계를 확립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경영진-노측위원, 경영진-직원, 직원-직원의 소통주체를 중심으로 소통체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식-수평식-하향식, 공식-비공식, 온라인-오프라인, 전체-소집단-개인 등 소통방식 및 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보는 것도 보다 체계적인 소통채널의 관리를 위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내부 전문가 양성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대상 및 목표에 따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사관계 관리역량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필요역량 정의) 이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역량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경영,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4차례 적법하게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기관의 대표자인 기관장이 사용자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을 기관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추가함으로써 개선하였다. 노사협의회는 노측 안건이 근로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측 안건 상정 전 근로자 자체 사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안건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 실적이 있다. 노사협의회에 기관장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운영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지금까지 기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노사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C 등급으로 평가된다.

II.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 · 활동 · 성과 종합평가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미주(미국,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드 등에 입항하고자 하는 한국발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AGM) 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선박 AGM 검사, AGM 예찰 및 방제,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운영의 효과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계량 및 비계량지표가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반적 실적이 인정 된다.
- 성과관리 체계 및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관은 2014년 2015년의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미션, 비전에서 전략방향, 전략과제, 단위사업 등으로 연계되는 성과관리 체계가 보다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치체계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며, 이를 통합한 하나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가치체계의 설정에 있어서 주요 사업 선정을 위한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다소 체계성에 아쉬움이 있다. AGM검사와 검역장소 관리 시스템 효율화라는 매우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 대한 접근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경영효율화, 안정적인 발전방안 마련, 고객감동서비스, 기관의 균형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지속 발굴의 경우 그 체계성이 다소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투명성 및 윤리성 제고 방안실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연 이 두 과제가 경영효율화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안정적 발전방안 마련은 그대로 과제로 가져와 가치체계에 따른 하위 과제 설정이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 고객감동서비스의 경우에도 전문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이 물론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고객을 위한 전략과제라 할 수 있지만,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충분한 것인지는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기관의 균형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 동력 지속 발굴의 경우,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미션과 비전, 전략 방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연계성을 찾자면 안정적인 발전방안 마련과의 관계가 가장 높아 보이나, 전략과제에서 왜 신사업 전략체계 수립 로드맵을 구축하는지, 그리고 그 로드맵은 어떠한 배경과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단위사업 전략방향에서 AGM 검사 및 검역장소 관리 시스템 효율화의 관점에서만 병렬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그 외의 전략방향에 대한 단위사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전체적인 가치체계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의 설계에 있어 그 논리적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여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 앞선 대내외 환경분석과 시사점을 가치체계와 하나의 그림에서 연계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적정성은 그 목표 설정 근거가 명확하며, 목표치 역시 매우 도전적이어서 성과향상을 위한 기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으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주요 사업별로 적정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사업전략체계 수립 로드맵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그 계획 수립의 체계성과 목적, 그 구체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 만약 신사업전략을 수립함에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신사업이라면, 적정 신사업의 발굴과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 이미지의 경우도 기관과의 정합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며,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관의 로드맵을 기관의 특성과 신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정하여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AGM 검사의 경우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에 있어서도 상대국 AGM 검출 선박이 2015년 실적 2척에서 0척으로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져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사무소별 검사 업무량 평준화건수에 있어서도 목표 15.4건 대비, 15.2건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증명서 미소지 선박의 상대국 입항수 역시 16척 목표대비 12척 실적으로 이 역시 초과달성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AGM 무감염 증명서 미소지 선박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선박에 대한 AGM 검사에 있어서 그 수요를 고려하여 포항사무소를 신설하고, 본원 1개팀을 축소하는 등 업무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와 그 실적이 인정된다.
- 고위험기의 유동성 및 각 사무소 간 검사 수요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검사 보조인력 4명을 감원하되, 전문성을 갖춘 기간제 계약직 3명을 투입하고, 수요 맞춤형 기간제 전문 계약 직원을 배치하여 고위험기간 중 사무소별 검사 업무량 편차를 2015년 대비 19.3에서 15.2로 감축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일원화, 신규 안전장비 도입, 노후 구명조끼 점검 실시, 안전의식 향상 및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3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선박 AGM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저위험기간을 활용하여 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7일간 8명이 참여하였고, 13과목에 대해 12명의 식물검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5일간 10명이 참여하였고, 16과목에 대해 14명의 식물검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이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국내외 식물검역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기능성 동계근무복 제작을 통한 검사관 사기 및 업무효율성 제고, 검사신청 선박 맞춤형 모니터링 및 고객 의견 수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와 문제점 대응이 적절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AGM 예찰트랩 조사 활동 강화를 위하여 밀도분석을 통한 트랩 설치 확대, AGM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예찰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제 강화, 항구 내 적재화물에 대한 AGM 모니터링 강화, AGM 약제 살포 최적기 분석, 항구 주변 산림면적 전수 조사, 동절기 AGM 난괴 제거 강화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AGM 방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 사각 지대인 수입재식용식물 입고 시 컨테이너 등에 부착되어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을 사전 관리하여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업 시스템 운영, 수입 금지품 및 밀수품 유입까지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재식용식물 수입자에 대한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간 처리 현황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과 AGM 검사 수요가 집중기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투입하여 업무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이러한 결과 1,952건에 대해 희망 일시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그 실적이 인정된다.

- 검역장소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애로 사항 접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관리업무 종합 안내 책자(매뉴얼)을 보완하고, 식물 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과 보완을 실시하였다. 관리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의무화하였으며, 안전관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식용식물입고 시 내외부 해충 발견 실적은 24% 확대(15년 53건 -> 16년 66건)되어 그 실적이 인정된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선박 AGM 검사와 관련된 비계량 지표는 검사관 업무 효율성 제고, 검사관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활동 노력, 고객만족 관리체계 고도화로 설정하여 각 지표를 원만히 운영하여 그 성과가 인정된다.
- 검사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원팀 축소 및 포항사무소 신설을 통한 조직 개편 및 지원 체계 공고화로 업무 유연성 증대, 식물검역 전문가 기간제 전문계약직 고용으로 업무 부담 감소 및 전문성 강화, 기능성 검사복 제작 배부로 근무 효율성 제고 등 그 실적이 인정된다.
- 검사관 전문성 향상 노력을 위하여 식물 검역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저위험기간 집중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 고양에 대한 노력을 기우렸으며, 국내외 업무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안전사고 예방으로 3년 연속 무사고 실적을 달성한 점, 고객만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고객 애로사항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수수료 반환절차 전산을 통한 민원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연중 24시간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 적시 출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AGM 예찰과 관련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는 AGM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합동 예찰시스템 활성화, AGM 예찰 협업 강화, AGM 약제 살포 적기 분석, AGM 신규 약제 등록 등 그 성과 관리가 원만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AGM 최초 검출 시 'AGM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AGM 확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검사 및 예찰, 약제 살포를 원활히 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합동 예찰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5년 21개 기관 34명이 합동 예찰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여 16년 29개 기관 73명이 합동 예찰에 참여하여 그 참여도를 높였으며, 예찰 협업의 관점에서 산림청, 지자체, 항만공사 및 해양항만청의 역할을 세분화 하고, 협업을 통한 약제 살포, 예찰트랩 조사 결과 공유, 예찰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AGM 약제 살포의 적기를 분석하여 각 항구별로 AGM 성층 최성기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충기를 분석, 도출하여 항구별로 유충기에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증대하였다. AGM 신규 약제를 등록하여 약제 저항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외래 병해충 유입 방지 및 식물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입 식물 컨테이너 및 검역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파레트, 포장재 등을 확인하여 유입을 차단하였다. 병해충 검출에 있어서 15년 53건 대비 16년 66건으로 상승시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였으며, 그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현장 업무 애로사항과 재식용식물 수입자 정보 제공을 위한 누리집 개선 역시 실적으로 인정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주요사업에 대한 환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링 채널로 내부적으로 월 2회 주간 회의, 연 2회 사무소 현장 소통회의, 연 4회 사무소장 회의, 연 1회 아이디어 공모전, 연 1회 직원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대외적으로도 연 2회 이사회 개최, 월 1회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한국/미국/캐나다 3개국 회의 등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평가 및 진단 영역에 있어서 월 1회 AGM 검사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연 2회 기관업무 추진성과 보고, 연 4회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대외적으로는 연 2회 식물검역 관계회의, 연2회 확대간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분석 및 환류에 있어서 우수성 학습 및 공유 확산을 위하여 2016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행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에 이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 관리 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예찰 및 방제와 관련하여서도 수시로 현안이슈회의, 난과제거 실적 점검, 주간 본원팀장회의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매월 예찰트랩 조사 결과 점검, 약

제 살포 실적 점검 및 연 2회 사업 실적 보고서 점검을 통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항만주변 AGM 밀도현황을 누리집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예찰 현황을 실시간 업데이트해 그 실적이 인정된다.
- 모니터링 및 업무 평가에서 '식물검역 확인필 수입식물' 스티커 수기 작성(건당 8장)으로 업무가 집중될 경우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스티커 발행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 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재식용식물 검역을 통한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과 검역장소의 효과적 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진단을 위하여 연 1회 고객간담회 개최, 연2회 식물검역관계 회의, 연 4회 확대간부회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신규사업 관련 전략방향에 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그 실적이 인정되나, 보다 구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계량지표 개선을 위하여 서울대에 자문을 구하여 지표를 개선하였고, 비계량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조직 전반 전략적 정합성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되나,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적 수정과 보완이 요망된다.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예찰 트랩 확대와 유살등 증설, 예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트랩당 AGM 검출수가 15년 18.8마리 대비 16년 28.9마리로 상승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상대국에서 AGM이 검출된 선박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개선 및 경위서 제출, 원인 분석을 통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전 AGM 검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원인 분석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자 계획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예찰트랩 조사 결과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방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15년부터 AGM 방제 적기 분석 및 약제 살포 최적기 분석을 완료하여 17년 적용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5) 주요사업별 범주 비계량지표(계량지표 포함)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사업에 대한 계량 및 비계량지표 구성 및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대 소속 농경제사회 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지표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2015년 지표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통제가능성의 정도가 다소 유동적이고, 지표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개선이 요망되었는데(상대국 AGM 검출 실적 vs 국내 AGM 발견 실적), 개선된 계량지표의 경우 통제 가능성이 높고, 지표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의 실적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 핵심성과지표인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은 기관의 설립 근거와 일치하여 매우 핵심적인 지표로 적절하며, 안전사고 예방률, AGM 예찰 활동률, AGM 밀도 저감 실적,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등 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데에 있어서 적합하게 설정되어 그 실적이 인정된다.
- 목표수준의 설정에 있어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초과달성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주요 사업 관리는 상대적으로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B+ 등급으로 평가된다.

2.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국내AGM발견 실적-상대국AGM검출실적)/국내AGM발견실적 x 100	목표대실적	100	(19건-0)/19건	100	15	15.000

나. 평가내용

- 국내 출항 선박검사시 AGM 검출 대비 상대국 AGM 검출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19건의 국내 AGM발견실적 대비 상대국 AGM검출 '0'실적을 달성하여 목표 100% 달성으로 목표대실적 평점 100으로 지표가중치 1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선박검사 시 AGM 검출 실적은 19건으로 직전년도(2015년) 대비 33건 크게 감소하였고, 상대국 AGM 검출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목표대비 100%의 우수한 성과로 100점 만점의 평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국내선박검사시 AGM 검출 실적은 2013년 56건, 2014년 76건, 2015년 52건, 2016년 19건으로 AGM 창궐이 크게 감소하였고, 기관의 철저한 검사노력으로 상대국에서는 단 한건의 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안전사고 예방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1-(안전사고발생건수) /선박검사건수(100건)	목표대실적	100	100 (무사고0 /2,748)	100.0 0	5	5.000

나. 평가내용

-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2016년 안전사고 발생건은 무사고로 목표치 100% 달성하여 목표대실적 100점 평점으로 지표가중치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6년 2,748척의 선박 AGM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관의 안전사고는 '0'건으로 3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선박검사 건수는 2014년 2,348척, 2015년 2,822척, 2016년 2,748척으로 적은 검사관의 인력으로 많은 양의 선박을 검사하였으나 철저한 예방노력으로 3년 연속 무사고의 안전관리를 달성하였다.

3. AGM 예찰·방제

1) AGM 예찰 활동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AGM트랩설치수/목표트랩설치수x0.5)+AGM트랩조사수/목표트랩조사수x0.5)	목표대 실적	트랩 수 464 트랩조사수 5,568	트랩수 482 트랩조사수 5,824	100.000	4	4.000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관 중 향만 및 향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트랩조사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목표치는 설치 AGM 트랩수 464개, 트랩조사조사 수는 5,568건이며 실적은 482개, 5,824건으로 지표 구성 두가지 요소 모두 100% 초과 달성하여 목표대실적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4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AGM 고위험기간(6~9월) 중 향만 및 향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 시기별·지역별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예찰트랩 조사를 실시하여, 트랩 종류별 유인효과(자동화트랩, 우유곽트랩) 및 AGM 발생밀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년대비 3.88% 추가 설치·운영하였다.
- AGM 밀도 증가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13년부터 동일한 지역에 307개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

라. 추세분석

- AGM 예찰 트랩 설치 실적은 2013년 319개, 2014년 334개로 향상되다가, 2015년 401개, 2016년 482개로 큰 폭의 성과 향상을 보이고 있다.
- 트랩당 AGM 검출 건수는 2013년 12마리에서 2014년 5.1마리, 2015년 5.9마리, 2016년 6.2마리로 2013년 이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 국내 AGM 밀도 저감 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조사인원 당 난괴 제거 실적)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2.831점 최저: 1.862점	3.028점	100.000	6	6.000

나. 평가내용

- AGM 선박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AGM 월동기간(10월~4월) 중에 항만 및 항만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실시한 난괴 제거실적의 생산성(조사인원 당 난괴 제거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조사인원 1인당 난괴 제거실적은 3.028점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 수준인 2.831점을 크게 상회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000점으로 지표가중치 6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AGM의 선박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AGM 월동기간(1~4월, 10~12월, 7개월 간) 중에 항만 및 항만 주변 산림지역 등에 난괴제거 작업 실시한 결과 2016년 2,513점을 제거하였다.
- 항만구역 밖의 2km 이내 지역 산림·녹지대·가로수, 건물·구조물 및 항만 내 적재화물 등에 대해서도 난괴제거 작업 실시하였으며, 난괴제거 실시 횟수는 주 2~3회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상황 및 대량 발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AGM 난괴 총제거 실적은 2012년 946점, 2013년 1,499점, 2014년 2,383점, 2015년도에도 2,982점, 2016년 2,513점으로 직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연평균 조사인원은 2016년 830명으로 2015년 1,271명 대비 29.05% 감소하여 1인당 난괴제거 생산성은 크게 향상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4.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강화를 통한 해외 병해충 유입차단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검역장소 관리실적 증감률×0.3) +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증감률×0.7)	목표대실 적	(직전년 대비) 120%	검역장소 관리 97.7 금지품 발견시적 124.53	97.653	5	4.883

나. 평가내용

- 수입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 수행 실적과 식물검역 상 위험도가 높은 유해병해충과 금지품의 발견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검역장소 관리 실적은 1,952건으로 직전년 대비 97.7%수준이고, 수입금지품 발견 실적은 66건으로 전년대비 124.53% 증가한 성과로 전년대비 116.48%로 목표수준 120%에 다소 미달하여 목표대실적 평점 97.653점으로 지표가중치 5.000점 만점에서 4.883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16년도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 건수는 1,952건으로 직전년도 관리업무 건수 대비 46건(23.02%) 감소하였으나, 해외병해충·금지품 발견 건수는 66건으로 직전년도 발견 건수 대비 13건(24.5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식물 유해병해충·금지품 발견실적은 2012년부터 10건, 2013년 28건, 2014년 41건, 2015년 53건, 2016년 66건으로 최근 큰 폭의 성과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IV. 한식재단



한식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평점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평가제외)	5		4.050	4.050
	2. 업무효율 - 사업수행 효율성	5		4.236	4.236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1.880	1.880
	(2) 계량관리업무비	8		4.352	4.352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8	D ⁰ *가점		3.200
	(2) 총인건비 인상률	5		5.000	5.000
	(3) 노사관리	7	D ⁰		2.800
	경영관리 합계	40		19.518	25.518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 종합평가	25	D ⁰		10.000
	2.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10		10.000	10.000
	3. 한식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 실적				
	(1) 전문인력양성 교육실적	10		10.000	10.000
	4.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1)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효과)	8		8.000	8.000	
(2) 홈페이지 활성화	7		7.000	7.000	
	주요사업 합계	60		35.000	45.000
	전체 합계	100		54.518	B

I. 경영관리

1. 고객만족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PCSI 2.0 고객만족도지수	절대지수 평가	100	81.000	81.000	5.000	4.050

나. 평가내용

-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적용에 따라 '16평가년도 PCSI 2.0 조사결과와 전년도 점수의 향상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년도 조사결과 절대지수로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1점으로 고객만족도 절대지수 평점에 따라 81.000점을 획득하여 5점 만점 중 4.0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2015년 신규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인 측정과 국민의 만족 불만족 요인 분석 및 환류를 통해 고객중심 경영 촉진 및 고객중심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획재정부 주관 PCSI 2.0 모델 최초 적용으로 2015년도 80.600점, 2016년 81.000점으로 조금 향상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2. 업무효율: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 평균인원	목표부여 (상향, 편차)	최고: 429,258,517 최저: 312,188,012	406,893,421	84.717	5	4.236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균인원 1인당 기관의 순사업비 금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수행효율성 실적은 평균인원 1인당 406,893천원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 429,258천원 대비 다소 못미쳐 목표부여 평점 84.717점으로 지표가중치 5점 만점 중 4.23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2016년 순사업비는 직전년도대비 586,590천원(6.54%)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인원은 23.5명으로 전년대비 0.5명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대비 1인당 순사업비 집행액은 16,658천원(4.27%) 증가하여 향상된 사업수행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수행효율성은 2011년 758백만원, 2012년 815백만원, 2013년 871백만원에서 2014년 389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5년 390백만원에서 2016년 407백만원으로 향상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재무예산성과

1)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2.506%	94.005	2	1.88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 나눈 예산집행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사업비집행률 실적은 92.506%로 목표치 100%에 다소 미달하여 목표대실적 평점 94.005점으로 지표가중치 2점 만점 중 1.88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 순사업비 예산총액은 12,835백만원으로 직전년도(2015년) 대비 180백만원 (1.38%) 감소하였고 사업비 집행액은 11,883백만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482백만원 (41.44%) 크게 증가하여 양호한 사업비 집행율 성과를 나타내었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 집행율은 2015년 64.499%에서 2016년 92.506%로 크게 향상되었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하향, 편차)	최고: 3.810% 최저: 5.080%	4.534%	54.403	8	4.35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전체사업비) 중 관리업무비 집행액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 관리업무비 비율은 매출액(전체사업비) 대비 4.534%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3.810%에 다소 못미쳐서 목표부여 평점 54.403점으로 지표 가중치 8점 만점 중 4.352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6년도 관리업무비 집행액은 520,584천원으로 전년대비 63,317천원(13.85%)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사업비예산집행액)이 11,4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1백만원(6.30%) 증가하는데 그쳐 2016년 관리업무비비율이 4.534%로 직전년도 대비 0.30%p(7.105) 증가하여 목표부여 평점 54.403점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관리업무비비중은 2011년 3.535%, 2012년 2.162%, 2013년 2.239%에서 2014년 4.320%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5년 4.233%, 2016년 4.534%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 보수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지표관리 방향을 대내외 경영여건 및 정부 정책, SWOT 분석을 통하여 그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도출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앞선 분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실행과제의 도출 역시 매우 규범적이거나 혹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그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성과지표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연봉제 지침준수, 1인당 복리후생비 적정 관리, 경영실적평가의 지표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전담조직 구성, 발굴과제 개선 등 측정가능하거나 평가가 가능한 지표라기보다는 실행과제의 일부로써 이루어지는 운영 과제를 지표로 설정하여, 지표관리의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요망된다.
- 성과연봉제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간부 및 비간부직에 동일하게 평가등급 5등급, 차등폭 3%P 이상, 차등인상률분포 10-50% 준수, 차등 직무등급 개수 5개, 성과연봉 비중 20% 이상, 성과연봉 차등폭 2배로 정부 권고안을 준수하여 설계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 성과연봉제 도입은 2016년 12월 급여규정 개정을 단행, 성과연봉제 가점 2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6년도 성과연봉제 운영 실적은 2015년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2017년도 성과연봉제 운영에 있어 보다 개정된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성과연봉제가 확산,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성과평가에 따른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평가도구 및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망된다. 성과평가에 있어서 계량 및 비계량평가의 비율, 계량평가에 있어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비계량평가에 있어서의 평가체계와 항목, 모니터링과 평가결과 환류 등 원활한 성과연봉제 운영과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및 복리수행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실적이 인정된다. 고졸에 대한 규정상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고졸자에 채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고등학생·대학생 청년인턴 혹은 체험형 청년인턴, 장기현장실습 또는 장기학생인턴 등과 같은 사회공헌형 인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적극적 고려가 요망된다.

(2)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평가/모니터링, 환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사무총장을 총괄로 한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 기관의 노력에 대한 실적이 인정된다.

○ 방만경영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이 2015년 9월 완료된 이후 추가적인 방만경영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실적이 인정된다. 최근 휴직과 휴가제도, 각종 수당에 대한 제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조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임금피크제 운영에 있어서 적용대상을 전직원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설계하고 있으며, 58세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15%로, 59세의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로 감액률을 정하였으며, 별도직군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그 실적이 인정된다.

○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없으며, 2019년 1명, 2020년 1명이 적용됨에 따라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별도 직군 적용과 직무설계, 신규직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설정이 요망된다 할 수 있다.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효율 저감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매우 적절한 별도직무 부여 및 대상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신입직원은 물론, 조직 내 구성원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합한 별도직위

부여 및 직무설계가 요망된다 할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미흡한 수준의 체계와 타 기관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D⁰ 등급으로 평가된다(성과연봉제 가산점 2점은 총점에 포함).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인상지침	목표부여	3.00%이하	2.927%	100	5	5.000

나. 평가내용

- 정부의 2016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기준 3.00% 이내인 2.927%를 달성하여 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정부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의 총인건비인상률은 2016년 2.927%로 정부기준(3.00%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노사관리

- (1)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

가?

- 기관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노사간담회, 외부전문가 활용,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기 추진전략 및 중장기 추진 전략 도출을 위한 조직진단을 이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기관은 노사관계 비전과 3대 전략목표, 3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 다만, 기관은 중장기적 노사관계 선진화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실행과제-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관의 경영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 하에 각 전략, 과제, 실행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갖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의 실행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가?

- 기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상생과 협력적 노사문화 구현’이라는 노사관계 운영 3대 원칙을 제시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예방적 갈등관리 차원에서 고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하였고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문자메시지 자제, 회식 축소, 휴가사유 없애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직원 설문조사 등 노사간 소통, 노사협조, 고충처리의 원활성, 경영정보의 공유,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Tool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노사간담회, 고충처리위원회, 내부소통 및 문화활동 등을 통해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였다. 기관이 내부소통 및 문화활동 등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소규모 인원, 인원 구성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수평식-하향식, 공식-비

공식, 온라인-오프라인, 전체-소집단-개인 등 소통방식, 소통주체, 절차 등에 따라 의사소통 채널을 분류해보는 것이 향후 체계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해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관리 역량을 분석해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경영,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기관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으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
- 지금까지 기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6년도 노사관리의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2015년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D⁰ 등급으로 평가된다.

II. 주요사업

1. 주요사업 계획 · 활동 · 성과 종합평가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 사업 선정을 위해 전사적 SWOT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영 전략 방향을 설정한 후, 경영 간담회 및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 과제 pool을 도출하였고, 이들 풀에 대해 전략적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3개의 주요 사업을 도출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경영 전략 도출의 일반적인 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다만, 기관의 핵심 전략 과제 도출 과정에 활용된 전략적 중요도와 긴급성 기준의 선정 근거를 보완하고 평가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절차를 고도화 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사업의 하위 단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보다 고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식 콘텐츠 활용 사업의 분야에서는 세부 목표의 도출과정이 충분히 적시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 목표의 도출과정과 그 세부 목표 설정 과정의 논리적 연계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관이 제시한 주요 사업 선정 사유는 상당 부분 객관적 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기관이 수행한 객관적 분석 결과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살펴보면 다수의 비계량 지표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치를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있어서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의 보완적 관리 및 사업 추진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기관의 사업 추진 노력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을 배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외 한식홍보 사업에 43.7%의 예산과 36.4%의 인력을 배분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의 미션과 환경 분석에서도 한식의 국제화가 주된 사업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자원 배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요사업 기술 순위 등에서는 세 번째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기관 내부에서 주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관리 우선순위 재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의 모니터링 계획은 단위 사업별, 주기별로 체크 포인트와 환류 내역이 관리 될 수 있도록 보다 고도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한식 콘텐츠 활용 사업의 경우, 기관이 시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추진 사업의 경제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사업 영역 중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는 ‘공공성’ 즉, ‘시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거나 제공되기 어려운가’이다. 기관의 사업 중 원형복원,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외국어 표기법 제시 등은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하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대표한식메뉴 개발 및 교육 등은 평창 및 강원 권역의 고유 음식 등의 홍보와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관이 제시한 사업 목표 달성률이 모두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당초 목표 설정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식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의 경우, 기관의 목표 달성도가 모두 1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사업 집행 추진의 적절성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난이도와 질적 성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단기적 실적(output) 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어서 기관의 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한식 홍보 사업의 경우, 기관의 목표 달성도가 140% 이상 기록하고 있는 하위 사업들이 많아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홍보 사업의 경우, 고객 특성(지역별, 콘텐츠별)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관의 사업 집행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분석 및 시장 세분화 전략(market segmentation)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 성과와 사업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보다 구조화된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제시한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관의 비계량적 성과 지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실적으로 제시된 내용 목표 관리에 의한 체계적인 성과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식 콘텐츠 활용 분야의 비계량 성과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1차 활동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비계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계량 성과의 경영목표 기여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식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과 국내외 한식 홍보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의 모니터링은 점검, 성과평가 및 분석, 환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의 성과를 공유 및 개선한 노력은 인정된다. 한식 콘텐츠 활용 분야는 홍보 및 확산 부족에 관한 환류가 있었고, 한식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분야는 지원액 조정, 국내외한식 홍보 분야에서는 콘텐츠 다변화 등에 대한 지적 및 환류가 있었다.

(5) 주요사업별 범주 비계량지표(계량지표 포함)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3개 주요사업에 대해 비전, 전략, 미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계량/비계량지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논리적 연계가 보다 정교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략 목표의 실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질적인 결과지표(outcome) 위주의 KPI 설정은 다소 미흡하며, 대부분의 산출지표(output)를 제시하고 있다. 계량지표의 목표 수준의 경우 전년대비 120% 등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도가 14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 실적과 정책 목표 수준을 고려하여 성과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식재단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써의 주요사업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와 기관의 2016년도 주요사업 관리의 전반적인 운영 수준을 고려하면 D⁰ 등급으로 평가된다.

2.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1) 한식콘텐츠 활용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콘텐츠 활용 건수	목표부여 (상향, 20%)	최고: 58,007건 최저: 38,671건	65,316건	100.00	10	10.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내외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발된 다양한 한식 콘텐츠의 보급 및 제공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2016년 실적치는 65,316건으로 전년('15) 대비 16,977건(35.12%)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58,007건을 크게 초과 달성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1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다양한 종류의 한식 콘텐츠가 축적되고, 최신 트렌드 및 수요자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연구보고서, E-book, 조리법, 문헌자료, 한식 이미지 등)의 한식 콘텐츠를 구축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관기관 및 외부 포털(온라인) 등과 연계해 한식콘텐츠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결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라. 추세분석

- 콘텐츠 활용 건수는 2015년 48,339건에서 2016년 65,316건으로 높은 성과 향상을 보였다.

3. 한식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 실적

1) 전문인력양성 교육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연간 총교육량/ 투입예산액) x 100	목표부여 (상향, 20%)	최고: 47.300 최저: 31.533	88.992	100.00	10	10.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국내외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간 교육실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2016년 실적치는 사업예산 1천원당 88.992시간으로 이는 전년('15) 대비 49.58시간(125.77%)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47.3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1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신규 교육과정의 발굴 및 시범교육 수료자 니즈를 반영하여 정규과정으로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다.
- 또한 해외 한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한정되었던 교육지역을 해외 각국으로 확장하여 신규지역 및 대상을 적극 발굴, 맞춤형교육을 실시한 결과 2016년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적(시간/천원당)은 2013년 34.136시간, 2014년 29.853시간에서 2015년 39.417시간에서 2016년 88.992시간으로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4.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1) 홍보 효과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언론노출건수/ 예산액) x 100	목표부여 (상향, 20%)	최고: 32.925 최저: 21.950	46.355	100	8	8.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한식문화 및 재단의 사업 홍보 관련 언론노출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2016년 실적치는 홍보예산 1백만원당 46.355건으로 이는 전년('15) 대비 18.92건(68.95%)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32.925건을 크게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8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재단은 한식문화와 재단 사업관련 언론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전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 미디어 홍보에 집중하였다.
- 또한 언론에 노출된 콘텐츠들 중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하여 재단에서 운영하는 뉴미디어(Facebook, Twitter, Weibo)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효과를 거두어 2016년 큰 성과를 보였다.

라. 추세분석

- 홍보 효과도(백만원당 노출건수)는 2012년 5.19건 2013년 3.33건, 2014년 23.10건에서 2015년 27.44건에서 2016년 46.355건으로 전년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2) 홈페이지 활성화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포털사이트 방문자 수	목표부여 (상향, 20%)	최고: 631,903 최저: 421,269	1,057,503	100	7	7.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한식 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지표는 국내외 한식 홍보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2016년 실적치는 연간 방문자수 1,057,503명으로 이는 전년('15)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631,903명을 크게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7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재단은 2016년 방문자수 증가는 적극적인 국내외 한식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및 언론노출 등을 통한 한식포털 활성화 전략을 적극 실행하여 높은 성과를 보였다.

라. 추세분석

- 홈페이지 활성화(포털사이트 방문자 수)는 2013년 522,511명, 2014년 505,622명에서 2015년 526,588명에서 2016년 1,057,503명으로 2016년 두배이상의 높은 성과 향상을 보였다.

제 IV 부
향후 평가 및
평가지침 개선사항

1. 기관의 비전전략 성과 체계도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측정산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성과지표 선정시 대표성, 측정산식의 적정성, 경영평가 계량성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기관 자체의 교육실시 독려도 가능). 또한 2016년 평가에서 지적한 것처럼 4개 기관 공통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망되며, 이에 연동된 결과지표(outcome) 위주의 질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반적으로 계량성과지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체지표 개발시, 기관사업 및 경영효율 계량평가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며 부처의 목적사업 성과 달성 및 기관 운영(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 선정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사업 대표 평가지표 개선(고도화) 절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단에서 검토한 각 기관의 주요사업별 대표 성과지표(계량)의 적정성은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체지표의 설계시 계량평가 목표부여 평가방식에 따라 지표의 임계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요사업 계량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매년 기관으로부터 익년도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개선(고도화)의 계획을 제출받아 경영평가단에서 별도의 지표개선반이 운영되어 이를 검토하고 재확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 평가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경영효율 공통계량지표 재개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재단)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 편람에는 경영효율 공통 지

표로써 사업수행효율성, 재무예산관리의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수행효율성으로 순사업비집행률(평균인원 1인당 순사업비 집행액)과 재무예산관리 계량성과지표로써 사업비집행율을 지표로 선택하여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에는 사업수행효율성으로 부가가치율(평균인원 1인당 부가가치금액)과 재무예산 계량성과지표로써 부채비율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 여기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재단 등의 경우에는 순사업비 집행액이 지난 5년간 집행액 규모의 변화폭이 커서 목표부여 편차의 방식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실적연도를 보이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의 경우 2016년 1.225% 수준이며 부채의 구성내용이 금융부채가 아닌 영업부채(미지급금, 종업원급여채무 등)로써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한 평가대상이 아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영의 효율을 평가하기 적합한 대체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주요사업 계량평가 목표부여방식의 표준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첫해의 평가에서 각 산하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이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이 각 기관의 제출방식에 따라서 편람에 결정되어 평가되었다. 2016년 역시 아직 기관의 계량지표의 과거 실적의 객관성 및 성과의 범주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역시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 주요 사업 계량지표 평가방법은 원칙 상 목표부여(편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목표부여 방식 또는 극히 한정적으로 목표대실적의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기관이 선정한 계량지표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평가단의 검토를 통해 고도화가 요구된다.

5. 주요사업 목표부여 계량평가 방식 수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라 계량평가 방법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계량지표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있다.

- 다만, 이와 같은 최고목표를 기준치 + 또는 - 2×표준편차(또는 10%)의 계량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기관은 직전년도 주요사업의 실적 대비 20% 이상의 당해 연도 실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보수적인 평가 방식이다.
- 이에, 타 부처(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등)의 경우에는 각 부처는 소속“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라 각 부처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만들면서, 각 부처의 현황에 맞게끔 이상의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 방식에서 목표부여의 최고목표를 “기준치 + 또는 - 1×표준편차(또는 10%)”로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작성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